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일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34호

Tuesday, June 4, 2024 A

한국 '옥수수 박사' 아들, 뇌물 혐의 기소

김용철씨, 군계약 체결 위해
해군 제독 고용...거액 지급

한국의 저명한 농학자의 아들이자 미국 벤처업계에서 성공한 CEO로 평가 받는 한인이 군장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김용철(영어명 찰리)씨와 공동 CEO 메건 메신저, 로버트 버크 전 유럽·아프리카지역 미해군 사령관 등 3명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A업체를 운영하면서 해군과 과일럿 훈련 프로그램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버크 전 사령관에게 퇴임 후 고용을 보장하고 거액의 연봉을 준 혐의다.

법무부는 업체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넥스트점프'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전자상거래 벤처업체로 시작해 현재는 기업문화와 경영 개선 플랫폼도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넥스트점프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해군 과일럿 훈련 프로그램의 일부를 제공했다. 해군은 2019년 넥스트점프와 계



김용철



로버트 버크

약을 해지했고, 버크 전 사령관 접촉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김씨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 2021년 7월 버크 전 사령관과 워싱턴DC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버크 전 사령관은 김씨 업체와 해군과의 계약 재개를 위해 해군 제독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김씨와 합의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뿐만 아니라 버크 전 사령관은 넥스트점프가 더 많은 훈련 프로그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다른 장성들을 설득 해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씨는 이 계약의 가치를 '수억달러'로 예상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양측이 만난 지 5개월만인 같은 해 12월 버크 전 사령관은 자신의 부관들

에게 김씨 업체와 35만5000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 버크 전 사령관은 퇴임 후인 이듬해 10월부터 연봉 50만 달러와 10만주의 스톡옵션을 받기로 하고 넥스트점프에 입사했다.

버크 전 사령관은 법무부 조사에서 넥스트점프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본인인 계약건은 아무 상관이 없으며 계약이 성사된 이후 넥스트점프 측이 고용을 제안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혐의가 유죄로 판결될 경우 버크 전 사령관에 최고 30년형, 김씨에겐 20년형이 각각 선고될 수 있다.

김씨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출신으로 1994년 넥스트점프를 창업했다.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노파이어(No Fire)' 정책으로 주목받으면서 존스홉킨스대가 선정한 가장 건강한 3대 회사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김씨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문화 혁신에 대한 영감을 준 사람이 부친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김씨는 유력 노벨상 후보로 꼽혀온 '옥수수 박사' 김순권 박사의 장남이다. 김경준 기자

한인 최초 상원의원 역사 오늘 경선서 사실상 확정

앤디 김, 지지율 줄곧 선두

100년의 이민역사 속 '첫 한인 연방 상원의원'의 꿈은 이뤄질 것인가.

뉴저지 앤디 김 연방하원 의원(3지구·사진)이 오늘(4일) 연방 상원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치른다. 조기 투표가 시작된 지난달 29일부터 뉴저지에는 김 의원의 상원 진출을 염원하는 당원들의 발걸음이 투표소로 이어지고 있다.

뉴저지주의 예선은 '폐쇄형 프라이머리(Closed Primary)'로 각당 소속 유권자들이 오는 11월 본선에 내보낼 당내 후보를 직접 선출한다.

주내 민주당원 비율은 57%로 공화당(41%)에 비해 월등히 커서 민주당 경선 승리자는 사실상 본선 승리자로 간주된다. 게다가 뉴저지 내 68%의 아시아인 가정은 집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아시아어를 사용한다.



앤디 김

아직 1세가 가장인 가정도 적지 않고 이민, 문화, 외교 등에서 아시아인들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여론이 크다는 것은 김 의원에게도 호재다.

지난해 현직이던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의 비위 혐의가 공개된 직후 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는 줄곧 지지율 1위를 기록해 왔으며 공화당 후보 2명과도 가상 대결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그는 당내에서 주지사의 아내인 태미 머피 후보가 캠페인 도중 경선을 포기하면서 단독 선두주자로 부각됐다. 이후 각종 언론과 지역 노조 등이 그를 지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의 당락 윤곽은 서부 시간으로 오후 9시 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성 기자

영일만 앞바다 "140억 배럴 가능성"

(석유·가스)

윤 대통령, 첫 국정브리핑서 발표
내년 상반기 결과... "성공률 20%"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한다"며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는 판단하에 물리탐사 심층분석을 맡겼다"며 "최근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라며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가 이어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세종=김민중 기자

▶ 2면 '영일만'으로 이어집니다



'양용 사건' 규탄 집회 '양용을 위한 사람들의 정의 위원회(JYPC)'는 2일 오후 2시 한인타운 월셔 잔디 광장에서 양용씨 사망 사건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양용씨의 유가족을 비롯한 한인, 타인종 등 시민 100여명이 참석해 LA경찰국을 규탄하고 정신질환자 대상 무력 사용 정책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집회는 양용씨에 대한 묵념, 사건 당시 비디오 오디오 청취, 유가족 및 참석자 발언 등으로 진행됐다. 김성진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홍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급 고가 수입
• 손금 여기 물받지 않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의 10%를 돌려 드립니다

보험료 10% Return 프로모션

- Audit 완료 9개월 후에 보험료의 10% 지급
- Audit 및 할인된 보험료 기준:
\$1,000 이상만 해당



703.639.0882



10% Flat Dividend

* The 10% Flat Dividend is offered by AmTrust Financial.



견적문의는 휴대폰으로
왼쪽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보내주시면 신속한 견적이 가능합니다.



VA Office

7535 Little River Turnpike,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1404 N Rolling Road, Catonsville, MD 21228 (구. 소망치과 위치)

SMART.SOLOMONUS.COM

시추공 1번 뚫는데 1000억 ... 최소 5번은 뚫어야 확인 가능

140억 배럴 석유·가스 가능성 발표
“매장 가치, 삼성전자 시총의 5배”
경제성 확인 땀 2035년 생산 목표
야당 “사업성 확인 전 선부름 발표”

▶ 1번 ‘영일만’에서 이어집니다.
이어 석유·가스전 개발이 물리탐사→
탐사시추→사업개발의 세 단계로 진행
된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한 윤 대통령은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
다”며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
들도 벌써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브리핑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2일) 직접
대통령께 탐사 결과를 보고했다”며
“140억 배럴 중 가스가 4분의 3, 석유
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향
후 구체적인 일정은 2027년이나 2028년
께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
적 개발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안 장관의 설명이다. 안 장관은 매장 가
치가 현실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에서 동해 석유·가스 매장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시스]

국가	매장량 (억 배럴)
아르헨티나	25억
영국	25억
말레이시아	27억
한국	35억(추정)
베트남	44억
인도	45억
멕시코	61억
앙골라	78억
노르웨이	79억
브라질	119억
알제리	122억
중국	266억
카자흐스탄	300억
나이지리아	369억
리비아	484억
미국	688억
UAE	978억
러시아	1078억
이라크	1450억
이란	1578억
캐나다	1681억
사우디	2975억
베네수엘라	3038억

의 5배 수준”이라고도 언급했다. 지난
주말 기준 삼성전자 시총을 440조원으
로 계산했을 때 2200조원의 가치가 있
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개발 성공
률에 대해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20%
정도로 나왔다”고 말했다. 여전히 실

패할 확률이 80%에 달한다는 뜻이
기도 하다. 야당에선 비판이 나왔다. 이
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석
유·가스 매장량이나 사업성을 확인하기
전에 대통령이 매장 추정치를 발표하
는 것은 선부름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비판은 시추 가능성과 경제적

때문이다. 3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
르면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확인매장
량이 35억 배럴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23개의 주요 석유 생산
국가운데 한국은 20위를 차지한다. 19
위인 베트남(44억 배럴)과 21위인 말레
이시아(27억 배럴)와 비슷하다. 그 뒤
로는 아르헨티나와 영국이 각각 25억
배럴이다.

영일만 앞바다에는 석유 35억 배럴
뿐 아니라 천연가스 105억 배럴이 매장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의 입
장이다. 기체인 천연가스 매장량은 조
사 방법에 따라 매장량이 크게 달라진
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천연가스는 우
리나라 전체가 29년간 쓸 수 있고, 석유
는 4년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 이
날 윤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은 정부가
지난 15년간 가장 진행해 온 지질조사와
물리탐사(탄성파·중력·자력 등)에 대
해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
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부터 같
은 해 말까지 분석한 결과일 뿐이다.
그 이후 5개월가량 동안 국내외 전문

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증은 수차례
거쳤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직접 땅을 파 확인해 봐야 실제로 유전
과 가스전이 있는지, 있다면 정확한 규
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12월 탐사시추를 시작해
2035년부터 석유·천연가스 생산을 시
작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탐사시추
에 한정해 보면 1공당 1000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분석된다. 깊이가 1km 이상
이어서다. 정부는 1공당 성공률을 20% 정
도로 보고 있다. 약 5000억원을 들여 5
번 정도 뚫어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올
연말 시작되는 첫 번째 탐사시추 결과
는 3개월여 뒤 나올 전망이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
은 “채산성이 확보돼야 실제 상업생산
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정부 발표가 증시에 전해지자
석유·에너지 관련 테마주 7개 종목이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한국가스공
사(29.87%), 한국석유(29.98%), 대성
에너지(29.91%) 등이 상한가 행렬에
 동참했다. **현일훈 기자, 세종=김민중 기자**

“포항에 석유” 48년전에도 들썩 ... 1998년엔 가스전 발견도

65년간 계속된 한국 유전 개발사
1976년 발견 땀 경제성 없어 중단
울산 해상 가스전 발견이 첫 성공
제주 남쪽 제7광구도 가능성 있어

1959년 첫 석유 탐사를 시작한 지 65년
만에 한국이 명실상부한 산유국 대열
에 올라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
다. 정부가 대규모 가스·석유 매장 가
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경북 포항’ 지역
은 석유 탐사 초기부터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곳이다.

포항 지역에 석유 부존 가능성이 제
기된 건 1960년대부터다. 국립지질조
사소는 1959년 전남 해안 우항리 일대
에서 국내 최초로 석유 탐사를 실시한
 뒤, 1964년 포항 지역에서 탐사를 이어
 갔다. 당시 시추 과정에서 소량의 천연
 가스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
 제성이 없어 더 이상의 개발로 이어지
 지 못했다.

경동총지할 일이 생긴 건 1975년 이
다. 1차 석유 파동(1973년)으로 물가상
승률이 20%대까지 치솟자 박정희 정부
는 자체적인 석유 수급을 위해 포항 영
일만 일대를 중심으로 다시 시추 작업
에 돌입했다. 그러던 중 1975년 12월, 시
추공 중 한 곳에서 드림통 한 통 정도
 되는 양의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다. 이
 를 원유라고 판단한 정부는 이듬해인
 1976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포항
에서 석유가 발견됐다”고 발표해 전국을
 들썩이게 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원
유라면 휘발유·경유·등유·중유·가스
 등 여러 물질이 뒤섞여 나와야 하는데
 정밀 분석 결과 비정상적으로 경유 함
량이 높았다. 정부는 1년여 뒤인 1977년
 2월 “포항 석유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
로 판명돼 시추를 중단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난 셈
이다.

이후 자원 개발은 오랜 기간 지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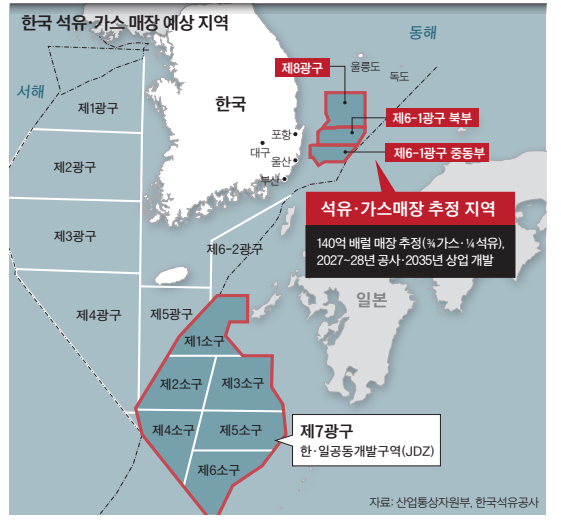
진했지만, 실패만 있었던 건 아니다. 한
국석유공사는 20년가량의 탐사 끝에
1998년 6월 울산 남동쪽 58km 해상에서
가스전을 발견하면서 처음으로 성공의
달콤함을 맛봤다. 실제 한국은 이 가스
전을 통해 세계에서 95번째로 ‘산유국’
 반열에 올랐다. 2004년부터 2021년 말
까지 해당 지역에서 동해 1·2가스전을
개발해 2조6000억원에 달하는 천연가
스와 중경질유를 생산하기도 했다.

동해 가스전을 끝으로 당장 산유국의
명맥은 끊겼지만, ‘제7광구’도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는 곳이다. 7광구는
제주도 남쪽이면서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육지의 연장 부분) 일부
구역을 뜻한다. 상당한 석유와 천연가
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돼 1974년 일
본과 공동개발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일각에선 내년 6월 이후 일본이 한
일 공동개발 협정을 깨고 독자적으로 7
광구를 개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동개발 협정이 끝나는 시점은 2028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6년 석유가
나왔다고 발표한 포항 대동동 영일
유전의 모습. [중앙포토]



년 6월이지만 2025년 6월부터 두 나라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끝내자고 통보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국제법상
해양경계협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양국은 해양경계를 저해하거나 위태롭
게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일본이
이를 위반해 독자적 개발을 이어갈 경
우 국제사법재판소에 가 정식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7광구는 구체적인 매장량이 확
인된 건 아니다. 2004년 미국의 국제정
책연구소 우드로윌슨센터는 “동중국
해 원유 매장량은 미국의 4.5배, 천연가
스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지만,
 동중국해 안에 7광구가 포함된 것일
 뿐 이 지역을 꼭 집어 말한 건 아니기에 지
나친 희망고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세종=이우림 기자

워싱턴 날씨 (°F)

5일(수)	79-68	8일(토)	76-61
6일(목)	86-65	9일(일)	78-60
7일(금)	77-57	10일(월)	79-61

6월 4일(화) 86~67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풀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 구글 스마트 쇼핑 |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 문자마케팅 | 유튜브광고 | 소셜미디어 | 웹사이트 제작 | 온라인 쇼핑물 | 이메일 마케팅

운전 시비 총격 사건 급증

차량에 총기 보관 운전자 많은 탓

버지니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운전 중 시비 끝에 총격으로 비화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관련 사건이 83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456건으로 450% 증가했다. 버지니아에서도 2014년 관련 사건이 한 건도 없었으나 2023년에는 6건으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사건은 모두 42건이었다. 메릴랜드도 6건에

서 10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GVA는 각 주의 경찰국이 운전 중 시비로 인한 총격사건을 별도 범주로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립경찰국은 GVA 통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언론사들의 자료 공개 요청이 쇄도하자 2020년 인 터스테이트 총격 사건이 51건, 2021년 71건, 2022년 55건 발생했다고 공개했다. 경제잡지 포브스의 조사에 의하면 버지니아는 난폭운전자 비율이 전국적으로 네번째로 많은 주로 꼽혔다.

조사에 의하면 버지니아 운전자 90% 이상이 운전 중 자신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싸움을 거는 행동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버지니아 등 상당수의 주가 총기 소유와 차량 내 총기 보관에 대한 규제를 가하지 않고 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차량 내부의 총기 보관 행위와 신체 내 소지 행위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어, 총기 은닉현대 라이선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 내 보관이 자유로운 탓에 운전 시비로 인한 총격사건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옥채 기자**



‘미국내 갈등문제’ 토론회 개최

박철곤 한양대 갈등문제 연구소 소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웨스트 버지니아 셰퍼스 타운에 소재한 셰퍼드 대학과 합동으로 ‘미국사회의 갈등문제현황과 대책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국사회가 당면

하고 있는 다양한 인종 갈등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반전시위 등 사회갈등에 대한 설명과 토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양교의 학생 교직원 교류와 연구 등을 위한 협약 체결 및 협력확대 추진을 논의했다. **김윤미 기자**



골프 대회로 8만7,500달러 기금 마련

글로벌 어린이재단 워싱턴DC지부

글로벌 어린이재단 워싱턴DC지부(회장 이미미) 주최 골프대회가 지난 2일 성료된 가운데, 총 8만7,500달러의 결식아동돕기 기금이 마련됐다.

메릴랜드 아임스빌 소재 피비다이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에는 총 144명이

참가해 데이비드 장(78타) 씨가 우승, 스티븐 리, 제이 최 씨가 각각 2,3위 메달을 차지했다.

이와함께 남성조에서는 브루스 최(1위), 이준혁(2위), 조나단 지(3위) 씨가 입상했고, 여성조 1~3위는 송윤경, 최미정, 경배 씨가 거머쥘었다.

또한, 남자 근접상은 다니엘 최, 여자

근접상은 제나 정씨가 받았고, 남자 장타상은 제이 허, 여자 장타상은 박지현 씨에게 돌아갔다.

한편 주최측은 이번 대회로 마련된 모든 기금이 “세계 각처에 있는 불우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모범이 되는 워싱턴 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월드미션칼리지 7명 학위 수여

워싱턴 월드미션칼리지(총장 양광호)의 제 8회 학위수여식이 지난 1일 페어팩스 한인교회에서 열렸다.

월드미션칼리지는 이날 박선경, 성지애, 줄리안나 로페즈, An Le Truong Nguyen 등 신학박사 4명과 제시 키로지, 로널드 모이아, 안드레아 발롱 등 신학석사 3명, 총 7명이 학위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월드미션칼리지는 평신도 지도자와 선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 설립된 신학과와 교육학, 교역학, 목회학, 신학석사, 신교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며 유학생을 위한 I-20 발행과 장학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IRS 무료 세금보고 전국 확대 영구화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높아

국세청(IRS)의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이 영구화되고 시행 지역도 확대된다.

연방 재무부와 IRS는 무료 세금보고 옵션인 다이렉트 파일(directfile, irs.gov, 이하 DF)을 영구 실시하고

2025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DF는 납세자들이 매년 세금신고에 평균 13시간을 투자하고 비용으로 270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되

면서 납세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마련됐다.

재무부는 지난해 말 전국 12개 주에서 시범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DF를 통해 올 세금보고 시즌에 14만명의 납세자가 9000만 달러 이상의 환급을 청구하고 세금보고 비용으로 560만 달러를 절약했다고 밝혔다.

또한 DF를 통해 세금보고를 한 납세

자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가 DF에 대해 “우수” 또는 “평균 이상”의 평가를 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들은 DF에 대해 사용하기 쉽고 다양한 세금 상황, 세액 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기능과 숨겨진 수수료가 없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납세자들은 IRS에 직접 신고할

으로써 확신이 들었으며 실수를 신속히 수정할 수 있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한 IRS 대니 워펠 커미셔너가 납세자들의 압도적인 만족도와 편의성 향상,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DF의 영구화를 권고함에 따라 재닛 옐런 장관이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낙희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좋은 선택 - 홈+회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광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2 최신행 X-Ray 완비
3 교정 및 물리치료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매칭,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Care People Home Health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RN 간호사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7/8 ~ 7/12 → 전화 예약 필수!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 버지니아와 남 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Lee Hwy)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06 Evergreen Ln. #104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Richmond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코리안 미소 수프’, 된장찌개로 불려야

한식 세계화 15주년 진단④

‘명글스’ 강민구 요리 셰프 명칭 간장·된장 그대로 써야



저서 'Jang: The Soul of Korean Cooking'을 소개하는 강민구 셰프. 김상진 기자

‘미슐랭 2스타 한식당’과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 13위’, 고급 한식당 ‘명글스’의 수석이다. 이곳의 강민구 요리 셰프는 한식 세계화는 한식의 근간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말하는 근간은 바로 ‘장(醬)’이다. 강 셰프는 장을 “한식의 정수이자 한식 세계화의 핵심”이라고 믿는다. 그는 장에 대한 열정을 담아 지난 3월 책(Jang: The Soul of Korean Cooking)도 출간했다. 장을 주제로 한 최초의 영문 요리책이다.

-한식 세계화 속 장의 역할은.
“장은 한식의 뿌리 깊은 존재다. 유행이 그치지 않고 길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전 세계적으로 한식의 소비와 관심이 증가했다. 한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국인들은 한식 요리 시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등 깊은 부분에도 관심을 보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깊은 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장에 대한 관심 역시 올라갈 것이다.”

-장의 세계화도 가능한가.
“타인종에게 전통 방식으로 만든 한식 간장(조선간장)과 한식 된장(한국식 중국균을 사용한 재래 된장)을 맛보게 했다. 마트에서 구하는 된장, 간장과 차이점을 느끼더라. 그 차이 한 번 느끼게 되면 전통 방식의 한식 간장과 된장의 수요는 충분히 늘 것이다. 기업들도 대량 생산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일본식 누룩 대신 우리 전통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장 냄새는 호불호가 있지 않나.
“한식 세계화 속 하나의 과정이다. 오히려 잘 만든 장은 냄새가 많이 없다. 우리 전통을 잃지 않으면서 변화를 주면 장 이외의 여러 발효 식품들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일본식 간장, 된장과 차별화는.
“이제는 코리안 쇼유, 코리안 미소가 아닌 한식 간장, 한식 된장이라는 고유명사로 불려야 한다. 요리책 출간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전통 방식으로 제조한 한식 간장과 한식 된장이 일식 간장, 된장과 어떻게 다른지 구분짓는 것이다. 타인종은 한식을 요리할 때 일본의 것을 사용해도 되는 줄 안다. 아니다. 한식을 요리할 때는 그것에 맞게 한식 간장과 한식 된장을 써야 제대로 된 맛이 나올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제 코리안 미소 수프가 아닌 ‘된장찌개’라는 고유명사로 불릴 때다.”

-장을 주제로 요리책을 쓴 계기는.
“한식에서 장을 빼놓고 요리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간

‘장을 어떻게 하면 더 새롭게 표현해 낼 수 있을까’, ‘장을 어떻게 다채롭게 소개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이 책이 그 고민의 결과물이다.”

-책에서 추천하는 레시피는.
“모든 레시피를 직접 만들고 사진도 직접 찍었다. 그래서 모든 레시피에 애정이 간다. 그중에서도 배추 소고기 된장 전골이 기억에 남는다. 2년 전 책을 집필하던 시기, 지금은 돌아가신 장모님께서 그 음식을 참 좋아 하셨다.”

-한식 세계화는 잠깐의 유행인가.
“일상화로 향하는 진행 단계다. 한식이 단순 일회성이 아닌 타인종의 식문화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책을 쓴 것도 있다. 책은 장이 한식 이외의 여러 요리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장이 타인종의 부엌 팬트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경준 기자

타인종도 ‘경찰 잔혹행위’ 규탄 한목소리

한인·타커뮤니티 100여명 참가
정신질환자 대응 개선 요구
총영사관·한인단체장은 불참
현직 정치인들도 모습 안보여

LA경찰국(LAPD)의 잔혹 행위를 규탄하고, 정신질환자 대응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범커뮤니티 차원의 집회가 열렸다. 2일 LA한인타운 내 월서 잔디광장에서는 LAPD 소속 경찰에 의해 무참히 총격 살해된 양용(40)씨 사건을 두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나와 범집행기관을 강력히 규탄했다.

‘양용을 위한 사람들의 정의 위원회(이하 JYYPC)’가 주최한 이날 집회는 데이비드 김 후보(연방하원 34지구), 그레이스 유 후보(LA시 10지구)를 비롯해 서울대동문화, 재미대일고 동문회 등에서 한인 100여명이 참여했다. 또, 피플스시티카운슬LA, 더처치위

드아웃월스 등 타인종 단체 및 흑인 교회 관계자들도 참여해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흑인인 유진 해리스씨는 “이건 한인 사회만의 일이 아닌, 우리 흑인 커뮤니티에서 지금도 매일 발생하고 있는 비극”이라며 “처음 양용씨 뉴스를 봤을 때 납의 일 같지 않았고, 이런 일은 앞으로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높여려고 나왔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살인 말고, 응급 도움’ ‘경찰을 규탄한다’ ‘LAPD가 우리 형제를 죽였다’ 등의 피켓을 들고 범집행기관을 향해 대응 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쳤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지난 2018년 7월 실버레이크 지역 트레이더즈 마켓에서 경찰의 오인 사격으로 여동생을 잃은 앨버트 코라도씨도 연사로 나섰다.

코라도씨는 “경찰은 그런 식으로 사

람을 매번 죽이고 있지만, 정책을 개선 하려거나 심지어 유감을 표현하는 말조차 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시민들의 세금으로 약 10만 달러씩 연봉을 받으면서도 정작 도와야 할 때를 구분 못 하고 무조건 총부터 쏘는 LAPD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총기 사용 정책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유가족 중 숨진 양용씨의 큰 형인 양인씨, 작은 아버지인 양용 변호사, 조만철 박사(정신과 전문의), 대니 박(피플스마켓 전 운영자), 최응환 변호사, 큐진마리 목사(더처치위드아웃월스) 등이 연사로 나섰다. 특히 사회운동가이자 흑인 교회를 이끄는 큐진마리 목사는 이날 4년 전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었다.

진마리 목사는 “양용씨 사건은 조지 플로이드처럼 망가진 경찰 시스템에 의



LA시의회 고 민병수 변호사 평생업적상 전달 고 민병수 변호사 1주기를 맞아 LA시의회가 지난달 31일 부인 캐롤 민(왼쪽 두번째) 여사에게 평생업적상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 민병수 변호사와 함께 학교이름 명명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알렉스 차 한인축제재단 이사장, 홍연아씨, 선거구재조정 캠페인을 함께한 지미 채씨를 비롯해 초등학교 제자, 1세 및 2세 한인 등 2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김상진 기자

해 발생한 것으로 우리 흑인 사회도 마음을 같이 한다”며 “LAPD는 늘 이런 방식으로 해왔는데 경찰의 폭력성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이 집회 참가를 요청했음에도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원) 관계자들은 아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숨진 양용씨는 한

국 국적자였지만, LA총영사관측은 장례식에도 정식 조문이 아닌 참관 형태로만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 한미연합회 등 주요 한인 단체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존이 LA시의원(12지구) 등 한인 현직 정치인들도 집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장열·김경준 기자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AI 답변 평가로 시간당 30불까지 수입

용돈벌이 - AI 답변 평가

평생 한 직장은 옛말, 지금은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는 N잡러 시대다. 다양한 분야의 일을 통해 수입을 올리는 것이 중요해졌다. 잘 알려지지 않은 부업 수단부터 최신 트렌드까지 용돈 버는 방법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소개한다.



온라인 지원서 채용까지 2시간 평가 건수 따라 보수 자동 입금 쉽고 여가 활용... 이중언어 유리

기 지어내서 '거짓 답변'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답변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5분 이내의 간단한 온라인 검검으로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다.

가장 쉬운 것은 위험성, AI가 폭탄 만드는 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위험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확인하면 된다. 기준에 맞춰서 점수를 입력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둘 중 어떤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다. 판단을 내린 후에는 판단을 내린 이유를 영어로 적는다. 업무 하나가 끝났다.

일을 시작하니 몰입이 돼 30분간 8개의 업무를 끝냈다. 의외로 지치는 일이다. 익숙해지면 AI의 답변을 한 번 읽고 바로 모든 기준에 대해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 평가 기준마다 답변을 다시 읽었다. 진실성의 관점과 간결성의 관점에서 보면 글이 다르게 느껴진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2시간 이상 내리 일을 하기

는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다. 30분 밖에 일을 안 했는데도 돈이 쌓이기 시작했다. 12달러 60센트, 돈은 일주일 정도 후에 페이팔로 자동입금 됐다. 직접 돈을 받기 전까지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지만 안심됐다.

AI 학습의 최대 장점은 쉽다는 것이다. 채용절차부터 업무 진행까지 어려운 부분이 없고 매우 빠르게 처리된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혼자 있는 자투리 시간 10분에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단점은 이중언어 구사가 필수적이라는 점. 기본적으로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왜 답변에 문제가 있고 왜 이런 평가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영어로 설명해야 한다. 논리적 문장을 쓸 영어 실력이 없으면 일을 하기가 힘들다.

AI를 학습시키는 일로 일반 직장에 다니는 만큼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용돈벌이 정도를 하기에는 최적화된 플랫폼이다. 익숙해지면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업무를 많이 처리하면 '등급'이 높아져서 지급되는 수당도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1시간에 30달러 정도에 도달할 수도 있었던 생각이 들었다.

▷웹사이트: outlier.ai 조원희 기자

보육비 34년간 263% 급증

물가 인상률의 2배 육박 부모 부담 월 800불 달해

데이케어와 프리스쿨 등에 지불하는 보육비용이 급증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세계 4대 회계법인 가운데 하나인 KPMG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4년까지 34년 새 보육비는 263%가 올랐다.

동기간 내에 전체 물가가 133% 올랐음을 고려하면 보육비의 증가세는 2배에 육박하는 것이다.

다이앤 스윈크 KPMG 수석 경제학자는 연구결과 발표와 함께 A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이 경제전망을 어둡게 보는 이유 중 하나가 팬데믹 이후 급상승한 보육비라고 밝혔다.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를 보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꼽

기도 했다. 실제로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비율은 2023년 기준 69%에 불과했다.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남성의 경우가 95%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은 수치다.

스윈크 경제학자는 "결국 많은 여성이 자녀를 돌봐야 하는지 아니면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지 몹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가 5월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부모들이 지불하는 보육비 중간값은 한 달에 800달러에 달했다.

일주일 20시간 이상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중간값이 1100달러까지 올라갔다.

이러한 보육비의 상승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원희 기자



박광민 국제KAGRO 회장 취임 국제식품주류상총연합회가 29일 도미니카 폰타카나서 열린 66차 정기총회를 통해 박광민 회장(연단)의 취임식 및 경과 보고회를 열었다. 박 회장은 뉴욕한인식품협회장 직도 맡고 있다. 이외에도 유흥규(위싱턴DC협회) 수석 부회장도 취임했다. [국제식품주류상총연합회]

테슬라 12만5000여대 리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 불량

테슬라가 안전벨트 경고시스템 불량으로 일부 차량을 회수 조치했다.

지난 3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안전벨트 미착용 시 나오는 경고시스템 불량으로 인해

국내 차량 12만5227대를 리콜한다고 보도했다.

이날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리콜 대상 차량이 운전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시각 경고등 및

오디오 경고가 나오도록 한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콜 대상에는 2012~2024년형 모델S 및 2015~2024년형 모델X, 2017~2023년형 모델3, 2020~2023년형 모델Y 일부 차량이 포함된다. 테슬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

데이트를 배포할 예정이다.

테슬라는 지난 4월에도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의 일부 부품 결함으로 인해 약 4000대를 리콜했으며, 1월에는 모델S와 X-Y 일부 차량에서 후방 카메라 작동 오류가 발생해 약 20만 대를 리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자율주

행 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 결함 수정을 위해 차량 200만 대에 대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리콜 이후에도 오토파일럿 관련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자 NHTSA는 지난 달 해당 리콜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의 절인 마이클 장

절인과 함께하시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SC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정복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사고후 서류 처리 |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 BlueCross BlueShield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 **410-480-0083**

헌터 바이든 재판, 큰 며느리가 '증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사진)이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돼 오는 3일 첫 재판을 받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어긋난 가족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헌터의 불법 총기 소지가 적발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첫째 며느리 할리 바이든이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서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할리는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 고(故) 보 바이든의 아내로, 남편이 뇌종양으로 투병하다 2015년 5월 46세의 나이로 숨지자 미망인이 됐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헌터는 “당신 미쳤나”고 화를 내며 할리에게 버린 권총을 다시 찾아오라 했지만, 이미 권총은 없어진 상태였고 이를 찾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보의 사망 이후 형수와 시동생인 할리와 헌터의 관계는 연인으로 발전했다. 헌터는 형이 숨진 뒤 5개월 후 부인인 케이틀린과 별거에 들어 가면서 할리와 교제를 시작했다. 문제의 불법 총기 소지 사건은 2018년 발생했다.

결국 헌터는 지난해 9월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데이비드 웨이스 연방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됐다. 헌터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었다. 할리뿐 아니라 헌터의 전처 케이틀린 역시 검찰 측 증인 명단에 올랐다.

문제의 불법 총기 소지 사건은 2018년 발생했다. 마약 중독자였던 헌터는 그해 10월 12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총기 상점에서 총기 구매 시 작성하는 연방 서류에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적고서 권총을 구입했다.

이 사건 및 재판과 관련해 헌터와 할리의 변호인, 백악관은 논평을 거부했으며, 케이틀린은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헌터와 동거 중이던 할리는 같은 달 23일 오전 헌터의 픽업트럭에서 이 권총을 발견하고서 인근 식료품점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

대선을 5개월 남짓 남긴 시점에서 헌터가 기소되면서 ‘성추행 입막음 돈’ 의혹 사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바이든 대통령 일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 ‘트럼프 유죄 평결’에 반격

기소검사 의회 출석요구

야당인 공화당이 당 대선 후보 자리를 예약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평결’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연방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지도급 인사로서, 친트럼프 성향이 강한 하원의장과 법사위원장이 선봉에 섰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유죄를 평결한 12명의 배심원단 대신, 수사 및 기소를 맡았던 검사들을 향해 공세의 날을 세웠다.

하원 공화당 인자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은 2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유죄 평결’에 대해 “우리는 우리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반격할 것”이라며 “우리가 의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읽혔다.

이에 앞서 집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오하이오·공화)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와 유죄 평결을 끌어낸 엘빈 브래그 뉴욕지 법관 지명검사장과 매튜 콜라젤로 검사에 대해 오는 13일 법사위 청문회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UFC 경기장에 나타난 트럼프 전 대통령

[AFP 연합뉴스]

조던 위원장은 출석 요구 서신에서 청문회의 취지에 대해 “연방 정부 당국 자들에 대한 정치적 기소, 특히 도널드 트럼프(전) 대통령에 대한 맨해튼 지검의 정치적 기소에 관여한 주(州)와 지역 검사들의 행동을 살펴볼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사들 의회 증언대에 세우려는 것은 결국 트럼프 기소를 정치 공방 소재로 만들어 기소에 대한 신뢰성을 깎아내리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덴 골드먼 하원의원(뉴욕)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현직 연방 정부 당국

자가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연방 의회가 조사할 권한은 없다면서 조던 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서류 조작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제기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유무죄의 결정 권한을 가진 배심원단이 유죄를 결정함에 따라 재판 담당 판사인 후안 마천 판사는 오는 7월 11일 형량을 선고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선 앞두고 남부 국경 사실상 ‘빚장’

4일 행정명령 서명 예정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정부 때 사용했던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 남부 국경에 사실상 ‘빚장’을 건다.

기록적인 불법 이주민 입국으로 국경 문제가 대선 핵심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불법 이주민 문제에 대한 비판으로 수세가 계속되자 강경 정책을 꺼내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이주민 대응과 관련한 행정명령 서명을 하루 앞둔 3일 의회에 세부 내용을 통보했다고 AP통신, CNN 등이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행정 명령은 불법 이주민 숫자가 일주일 단위로 하루 평균 2천500명이 넘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국경에 도달하는 불법 이주민 숫자가 하루 평균 1천500명으로 줄어든다면 국경은 다시 개방된다.

현재 남부 국경의 불법 이주민 숫자



가 하루 평균 2천500명이 넘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망명을 희망하는 이주민들에게 국경이 즉각적으로 폐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AP통신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 “국경에서의 (불법 입국) 숫자를 통제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한 가장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이민법 202(f)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에게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외국인 이민자 또는 비이민자 등의 입국을 중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조항을 사용해 이민을 통제했으며 민주당은 당시 이를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경한 국경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 대선의 주요 정책 이슈인 불법 이민 문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초강경 이민 정책을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 문제 대응 정책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나은 평가를 받고 있다.

AP통신의 지난 4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재임시 이민 및 국경 안전이 악화했다는 응답이 56%를 기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37%만 그렇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이유로 국경 강화를 추진하고 정책 발표 시기를 고심해 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초 국정연설 전에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 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날 텍사스주의 남부 국경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다.

애플 주가, 올해 최고가 육박

시총도 3조 달러 탈환 시도
10일 개막 WWDC 기대감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 주가가 내주 인공지능(AI) 관련 발표를 앞두고 올해 최고가에 육박하고 있다.

3일 뉴욕 증시에서 동부 시간 기준 오후 2시 23분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0.56% 오른 193.32달러에 거래됐다. 지난 1월 29일 이후 4개월 만인 지난달 20일 190달러선을 회복한 이후 올해 최고가 194.67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셈이다.

4월 19일 164.78달러까지 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주가는 한 달 보름 만에 17%가 상승했다.

시가총액도 2조9천640억 달러를 기록하며 3조 달러 탈환을 시도하고 있다. 애플 주가의 상승세는 내주 10일부터 열리는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행사는 애플이 매년 아이폰 등 장치의 기기에 탑재하는 소프트웨어 업



그레이드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다. 지난해에는 혼한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를 선보였지만, 하드웨어보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발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에는 애플이 AI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애플은 그동안 AI 경쟁에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하는 것이다. 애플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AI를 구현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아이폰 운영체제 iOS 18 등에 생성형 AI를 탑재하고, 음성 비서 ‘시리’를 이용자와 대화 가능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p>버지니아 상가건물</p> <p>3백10만불, 1.8에이커 Cap Rate 7%, 입차 5개 연순수의 \$218,000</p>	<p>디시 유명 델리</p> <p>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정부임주 건물 1층 순수의 = 주인운영 없이 1만불</p>	<p>버블티 가게</p> <p>1년 70만불 매출, 렌트 6천불 순수의 한달 1만6천 판매가 36만불</p>	<p>Beer & Wine Shop</p> <p>주2만불 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메릴랜드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p>	<p>식당 자리</p> <p>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p>
<p>참고</p> <p>전기시설 완벽한 참고자리 임대 9000 SF 현트, 버지니아</p>	<p>사무실</p> <p>에난데일, 1200 SF 사무실, 병원적합, 35만불</p>	<p>상가</p> <p>맥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p>	<p>Beer & Wine Shop</p> <p>주1만8천불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버지니아 조건부임대계약, 35만불</p>	<p>식당 자리</p> <p>5500 SF, 임대 버지니아 페어팩스카운티</p>
	<p>사무실</p> <p>워싱턴 디씨, 교통 좋은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찾습니다</p>	<p>상가</p> <p>비엔나, 버지니아 상가매매 연순수의 52만불, 8백만불</p>	<p>콘도</p> <p>방2개, 화장실2개, 차고1개 있습니다 메트로근처, 웨그먼옆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p>	<p>식당자리 제과점 건물매매</p> <p>0.5 에이커, 3500 SF 매매가 5백만불, 버지니아맥클린</p>



주 택 투자 컨설팅 주재원 랜딩 서비스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여성 최초 박사·시장 세인바움, 최고권력 유리천장도 깼다

(멕시코 국립자치대) (멕시코시티)

멕시코 200년만에 첫 여성 대통령
여당 후보로 압도적 표차 당선
유대계 엘리트 에너지 과학자 출신
세인바움 “여성 모두 함께 해낸 것”



대선에서 승리해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된 클라우디아 세인바움(왼쪽 셋째)이 3일(현지시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마초(macho)의 나라’로 불리는 멕시코에서 200년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3일(현지시간) 좌파 집권당 국가재건운동(MORENA·모레나) 소속의 클라우디아 세인바움(61) 후보가 유리천장을 깨고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당선을 확정 짓자, 현지 언론은 “미국보다 먼저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멕시코 중앙선거관리위원회(INE)는 무작위 표본을 통한 신속 집계 결과 세인바움 후보가 58.3~60.7%를 득표하며 승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2위는 26.6~28.6%를 얻은 우파 중심 야당연합의 소치틀 갈베스(60) 광역전선 후보, 3위는 호르헤 알바레

스 마이네스(38) 시민운동당 후보로 9.9~10.8%를 얻는데 그쳤다. 오차범위는 ±1.5%다. 멕시코 대통령은 6년 단임제이며, 새 대통령의 임기는 10월 1일부터 2030년까지다.

세인바움은 당선이 확정되자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멕시코 공화국 건국 200년 만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고, 그 대통령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모든 멕시코

국민에게 감사드린다”고 게재했다. 이어 멕시코시티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승리 연설을 하며 “비바 멕시코(멕시코 만세)”를 외친 뒤 “여성 대통령 탄생은 나 혼자 해낸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조국을 물려준 여성 영웅들, 어머니들과 딸들, 손녀들과 함께 이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 평론가들은 올해 대선에 유독 여당 지지세 결집세가 확연해 일찌감

치 ‘승부의 추가 기울었다’고 관측해왔다. 이는 레임덕 없이 임기말까지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구가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70)의 후광 덕분이라고 일간 레포르타는 전했다.

세인바움은 중남미 최고 명문대로 꼽히는 멕시코 국립자치대(UNAM·우남)에서 에너지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여성이다. 2007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멤버이기도 하다. 엘리트 과학자인 세인바움을 정계로 입문시킨 사람이 바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다. 그는 2000년 멕시코시티 시장 시절, 세인바움에게 전화를 걸어 “(멕시코시티의) 환경부 장관을 하고 싶다”고 물었고, 세인바움이 이를 승낙했다.

이후 세인바움은 멕시코시티 시장(2018~23년), 대통령 당선까지 ‘여성 최초’의 기록을 세우며 정계에서 승승장구했다. 리투아니아·불가리아 유대계

혈통인 과학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세인바움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가톨릭 국가의 수반이 된 첫 유대인 지도자라는 기록도 세웠다.

세인바움의 당선으로 멕시코는 행정·입법·사법부의 수장을 모두 여성이 맡는 나라가 됐다. 앞서 지난해 1월 노르마 루시아 피냐 에르난데스(63) 당시 대법관이 여성 처음으로 대법원장에 선출됐고, 같은 해 9월 여성 정치인 아나 릴리아 리베라 리베라(51)와 마르셀라 게라 카스티요(64)가 각각 상원의장, 하원의장이 됐다.

멕시코는 여성의 보편적 참정권을 보장하기까지 미국보다 33년이나 더 걸렸지만, 미국보다 빨리 최초 여성 지도자를 배출했다고 이뤄냈다고 CNN은 전했다. 타라 존 CNN 논설위원은 “매일 여성이 10명꼴로 살해되는 가부장적 문화와 높은 젠더 폭력 비율로 유명한 나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했다.

박형수·임성영 기자

모디 총리 3연임 확실시... 인도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총선서 여당 최대 392석 확보 전망
NSE 니프티50 지수, 2만3000 돌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인도 집권당 인도국민당(BJP) 주도 정치연합이 예상대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인도 총선이 1일 밤 투표가 종료된

가운데 현지매체인 NDTV는 BJP 주도 정치연합(NDA)이 연방하원 543석 가운데 과반(272석)을 크게 뛰어넘어 최대 392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직전 2019년 총선 때는 353석을 차지했다. 반면 연방의회 제

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가 이끄는 정치연합 인도국민발전통합연합(INDIA)은 120여석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모디 총리는 3선 연임에 성공하게 됐다. 모디 총리는 1일 밤(현지시간) SNS에 “NDA를 위해



모디

국민들이 기록적인 투표를 해주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3일(현지시간) 인도 증시가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루피화와 국제화 동반 상승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인도증시에서 NSE 니프티50 지수가 3% 넘게 상승해 2만3000을 넘어섰다.

개표는 4일 일제히 시작되며, 이날 밤 무렵 선거결과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NDA는 모디 집권 2기 실적인 경제 성장을 내세우며, 국제사회에서 인도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경제와 함께 국민의 약 80%를 차지하는 힌두교 지지세가 집권 여당의 든든한 뒷배가 됐다.

이번 총선의 유권자수는 약 9억6880만명. 투표는 지난 4월 19일부터 6주 일정으로 게시됐으며, 1일 마지막 7단계 투표가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등 57개 선거구에서 실시됐다.

한지혜 기자



현대차, WRC 이탈리아 랠리 우승... 올해 3번째 현대차가 ‘2024 월드랠리챔피언십(WRC)’ 이탈리아 랠리에서 올해 세 번째 우승을 거뒀다. 현대차는 현대 월드랠리팀의 드라이버 오토 타낙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현지시간)까지 이탈리아 사르데냐에서 열린 ‘2024 WRC’ 시즌 6라운드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현대차]

OPEC+, 내년 말까지 감산 연장... 유가 다시 뛰나

중국 경제둔화, 고금리 장기화에 한달새 WTI가격 6% 내리간 상황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가 오는 2025년 말까지 감산 연장에 합의했다. 2일(현지시간)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OPEC+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장관급 회의를 열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1일 366만 배럴 규모의 석유 생산량 제한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1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등 8개국이 합의한 자발적 추가 감산 조치도 연장됐다. 이달 말 만료 예정이었던 하루 220만 배럴의 감산 조치가 오는 9월 말까지로 연장된 것이다.

이들 국가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2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산량을 축소할 계획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감산 완화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원유 생산이 늘어난 데다 고금리 장기화, 중국 경기 회복세 둔화로 원유 수요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공급 과잉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셰일 원유 생산이 늘어나고 있고 수요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커 가격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달 31일 기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1.18% 하락한 배럴당 76.99달러에 마감했는데, 5월 한 달 사이 가격이 6% 하락

했다. 브렌트유와 두바이유 가격도 한 달 사이 각각 7.1%·5.6% 떨어졌다. 국제금융센터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하고 있지만 원유 공급에 차질이 없고, 미국 금리 인하 기대 후퇴로 인해 원유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진 것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감산 연장 조치가 국제유가를 끌어올릴지에 대해서 전망이 엇갈린다. WSJ은 “이번 조치가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11월 미 대선 때까지 유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감산이 연장되긴 했지만 단계적으로 자발적 감산량을 축소하는 계획도 함께 나왔다”며 유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오효정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 약 챙겨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간단한 집안일 도와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 드립니다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최태원 “SK 성장역사 부정판결 유감, 진실 바로잡을 것”

SK그룹 CEO 20명과 긴급회의 2심판결 확정 땀 지배구조 위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전문학적인 재산 분할 판결이 나오면서 SK그룹이 술렁이고 있다.

SK에 따르면 3일 오전 최 회장과 SK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20여명은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임시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해 2심 결과 등을 두고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SK가 성장해 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간 쌓아온



상의, 22대 의원 환영리셉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가운데)이 3일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에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언집을 전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SK그룹 가치와 그 가치를 만들어 온 구성원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어 입장 표명이 필요했다”며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룹 경영에 한층 매진해 그

린·바이오 등 사업은 ‘양적 성장’보다 내실 경영에 기반한 ‘질적 성장’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사내 게시판에도 이 같은 취지로 사과의 글을 올렸다.

그간 SK는 최 회장의 이혼소송에 대

해선 ‘회장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선을 그으며 공식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2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 1조3808억원 등 1조382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기류가 달라졌다. 2심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SK그룹 지배구조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그룹 전체의 일이 됐다.

특히, 재판부가 SK그룹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에 대해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특혜로 본 것도 SK그룹이 직접 대응에 나서는데 트리거가 됐다.

이날 긴급 대책회의에서 경영진은 “마치 정경유착이나 부정한 자금으로 SK가 성장한 것처럼 곡해한 법원 판단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앞으로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결연히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지분가치를 7500억원으로 본 SK실트론 지분 매각도 여의치 않다. 우선 SK실트론을 매각하려면 빌린 돈을 갚고 SK(주)주식 4.33%에 걸린 질권 설정부터 풀어야 한다. 매각 대상을 찾기도 쉽지 않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업종 특성상 SK실트론은 매각 협상 대상이 극소수라 처분이 어려운 데다 최 회장 지분을 매입해도 SK(주)가 최대주주인 실리콘 웨이퍼 업체를 7500억원에 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1심에서 지분 분할을 요구했던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받은 자금으로 SK(주)주식을 사들일 수 있다는 변수도 있다. 노 관장이 1조3828억원 전액을 SK(주)주식 매입에 쓰면 10.5%의 지분을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현재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시 자금 활용 안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최현주기자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한다... 오늘 의정갈등 출구전략 발표

“되로 열어달라” 병원장 건의 수용 의료계 “복귀 인원 적지 않을 것”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가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7일 수련병원장들에게 내렸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로 의료계가 사직서 수리를 요구해온 데다, 내년의 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른 시간 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에 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고 안내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브리핑에 대해 “전공의 관련 처분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와 함께,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서울 주요 대형병원 원장들은 지난달 3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만나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되로 열어 달라”며 사직서를 수리하게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의료계에서는 사직서 수리가 가능해지면 전문의 시험을 앞둔 고연차



의료계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모집 홍보물이 붙어있다.

(3~4년 차) 전공의들이 복귀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원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병원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나가겠지만,

복귀하는 인원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절반 이상 복귀도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반면에 사직서 수리를 요구해온 전공의들은 정부가 실제 명령을 철회할

지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는 “이제 와서 갑자기 사직서를 수리한다고 하는 것은 병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 같다”며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게 있나 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공의도 “복귀하는 전공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2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9명 중 9630명(91.6%)이 병원을 이탈한 상태다.

한편 이날 정부는 오는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생들을 향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수업 복귀를 촉구했다.

최현주기자

이원석, 김건희 여사 소환에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본지, 최재영·용산 통화녹취 입수 “김창준 건, 서초동서 연락받아” 확인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퇴근길에 취재진이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을 묻자 “오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부터 여러 차장검사가 새로 보임했고,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됐다”며 “수사팀이

수사 상황과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른 결론을 내리리라 믿고,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건에 있어서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런 원칙과 기준을 견지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지난달 30일엔 수사팀장인 김승호 부장에게 직접 수사 경과와 향후 수사 계획 등 관련 보고를 대면으

로 받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명품백 의혹 수사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최재영 목사를 2차 소환해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와의 면담 당시 청탁과 관련해 대통령실 조모 과장, 국가보훈부 A 사무관과 통화한 녹취 파일을 제출받았다.

3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녹취 파일에 따르면 최 목사는 2022년 10월 17일 대통령실 소속 조모 과장으로부터 “잘 계

셨어요? 김창준 의원님 건으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우선 절차를 좀 많이 알아야 하는 상황이라구요”라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목사가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부탁한 뒤, 대통령실 조과장이 전화를 걸어와 안장 절차에 관한 설명과 함께 국가보훈부 담당자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그 당새 후 보훈부 예우정책과 A 사무관이 최 목사와 통화해 국립묘지 안장 조건을 설명했다.

김준영·김정민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www.GIANTREALTY.com

자이언트 부동산

부동산 전문지식
협상능력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MD·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야당 '대북송금 수사' 특검법 발의... 여당 "이재명 방탄이냐"

검찰이 '이재명 공범' 적시한 사건 이화영 1심 판결 나흘 앞두고 압박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이하 대책단)'이 3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북송금조작 특검법(이하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 선고(7일)를 나흘 앞두고서다.

이날 오전 열린 특검법 기자회견에선 곧장 "방탄 특검이 발의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모든 행정·입법행위를 정치적으로 왜곡하면 어떤 행위도 스스로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특검법 어디에도 '이재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데 '이재명 방탄 특검'이라고 주장하는 건 한참 오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법에 따른 특검수사는 이재명 대표 연루 사건을 뒤집기 위한 수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의 수사대



이성운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앞줄 가운데)이 3일 국회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제정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상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관련된 검찰의 구형 거대 및 진술강요 의혹 등이다. 2018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측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내용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된 거란 취지다. 검찰은 지난 4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고,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일 열린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특검법 대표 발의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운 의원이다. 공동 발의자엔 박군택(광주

고검장)·양부남(부산고검장)·주철현(광주지검장) 의원 등 검사장 이상 고위 전관 의원들과, 이진태(고양지청장)·김기표(중앙지검 특수1부)·김동아 의원 등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 등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에서 "매머드급 이재명 방탄 라인"(정점식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방탄 논란이 예견된 상황에서도 대책단은 "(검찰의) 회유, 협박, 사건거래 의혹, 자료제출 거부 정황이 많아서 특검법이 필요하다" (주철현 의원)고 주장했다. 맨 처음 대책단이 출범한 것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 4월 4일 공판서 제기한 '술판 회유' 의혹을 파보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당초 이 전 부지사가 "술을 직접 마셨다"고 한 진술을 그의 변호인이 "입을 대보았는데 술이어서 먹지 않았다"고 바꾸고, 술 판티 지목 장소도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에서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로, 일시도 "작년 6월 30일 직후"에서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로 계속 바꾸면서 관련 진술은 신뢰도가 떨어졌다.

대책단은 최근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거액을 송금한 이유가 자사 주가를 띄우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국정원 문건 보도를 근거로 "쌍방울 주가조작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검찰의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국장을 참석시켜 "단순히 이화영 전 부지사뿐 아니라 주변 상대로도 압박이 있었다고 의심된다" (김동아 의원)라고도 밝혔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정당에 이어, 이 대표 개인 로펌이 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 특검법에 대해 "검찰 검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며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정용환 기자

겉으로는 초상집, 속으로는 잔칫집?... 위기감 없는 여당

현장에서

초상집일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 잔칫집이었다. 4·10 총선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국민의힘을 보며 최근 드는 생각이다. 지난달 30~3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1박 2일 간의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 모습은 충격이었다.

총선 참패 뒤 연찬회 분위기는 무거워야 정상이지만 30일의 풍경은 달랐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가 "여당 국회의원들이 가슴에 다는 배지는 금배지가 아니라 제 눈에는 고난의 십자가로 보인다"라고 말하는 와중에도 상당수의 의원이 즐기고 있었다.

이들을 깨운 건 잔칫집이었다. "우주항공청 개청식 뒤 불가능에 가까운 일정도 불구하고 연찬회에 와 주신"이라고 소개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자 좌중에선 함성이 터졌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저녁엔 아가 맥주도 놓지 않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욕 좀 먹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맥주로 축하 주(酒) 한잔씩 다 드리겠습니다. 화이팅"이라고 외쳤다. 2022년 시작된 '연찬회 금주령'은 이렇게 깨졌다. 이날은 채상병 특검법 부결 이틀 후이자, 열차려 끝에 사망한 훈련병의 영결식 날이었다. 이날 방송 뉴스엔 '즐거운' 연찬회 현장이 대통령실의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연루 의혹과 사망 훈련병의 영결식 소식과 한데 버무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대책을 논의하는 의원총회에 참석해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전민규 기자)

려졌다. 김민진 수석대변인은 "요즘 저녁 먹으면서 맥주 한잔 안 하는 곳은 없다"고 말했지만, 김재섭 의원은 "너무 잔치하는 분위기처럼 나와 좋아 보이지 않았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윤 대통령은 큰 박수를 받으며 '어퍼컷' 세리머니도 했다. 총선 뒤 잔치상이 차운은 아니다. 지

는 분위기처럼 나와 좋아 보이지 않았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윤 대통령은 큰 박수를 받으며 '어퍼컷' 세리머니도 했다. 총선 뒤 잔치상이 차운은 아니다. 지

난달 중·하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22대 당선인들과 세 차례 만찬했다. 일부 당선인은 윤 대통령을 "각하"라 부르며 "무조건 충성한다"라거나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는 등 아부성 발언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눈 뜨고 못 봐줄 낮은 일이 많았다"고 전했다. 연쇄 만찬에서 술은 각각 맥주 한 잔 또는 화이트와인 한잔 정도였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소주·맥주를 섞은 폭탄주가 몇 순배 돌았다.

지난달 31일 연찬회 끝에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낸 결의문엔 "지난 총선에서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다" "언제나 민심을 가장 두려워하겠다는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비장한 말은 잔칫집 분위기와 쉽게 겹쳐지지 않았다. 이런 표리부동함이 계속된다면 바닥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 김기정 기자

"도종환 인도 일정, 한달 전 확정됐는데... 1주일 전 김정숙 여사 추가"

6000만원대 기내식 논란까지 번진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이 문재인 청와대의 셀프초청 때문이라는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협조요청공문(2018년 10월 5일 작성)에 따르면 당시 문체부는 외교부에 "문체부 장관이 11월 4~7일 인도를 방문할 예정으로 이

동·숙박, 출입국수속, 안전보장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도 장관은 11월 4일 델리에 도착해 ①인도 관광부·체육부와 양해각서 체결(11월 5일, 델리) ②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이하 11월 6일, 아요디아) ③디왈리 축제 참석 등의 일정을 수행하기로 돼 있었다. 공문에는 인천-델리 왕복 민간항공기 편명(대한항공 KE481편,

아시아나항공 OZ768편)과 출발·도착 시각까지 명기됐다. 인도 방문 한 달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도 장관의 인도 방문 확정 시점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의실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는 도 장관의 출장 일정이 정해졌는데도 10월 중순 인도 측에 김 여사 초청을 요구해 10월 26일 나렌드라 모디 총리

명의 초청장을 받았다. 출국(11월 4일)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그간 문재인 청와대는 도 장관의 일정 확정 시점을 알리지 않고 "인도 요청으로 김 여사가 간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박수영 의원은 "한 달 전 전해진 사안을 막판에 뒤집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항공편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로 대체됐다.

당초 일정에는 없던 타지마할 인근 아그라(Agra)공항 경유가 추가됐다.

아그라에는 김 여사의 귀국 경로(아그라→하노이→인천)로 가는 항공편이 없다. 박 의원은 "전용기로 바뀐 뒤 문체부는 예비비 4억원을 추가로 승인받아야 했다. 외유를 위해 형세가 낭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3일 윤상현·배현진 의원을 중심으로 김정숙 여사 특검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반면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효성·심새롬 기자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신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베테랑 신참 시대, 한쪽선 황태·동태... 장년 맞춤형 정책 시급

(황당하게 퇴직) (한겨울에 퇴직)

저출산·고령화에 '4050도 청년'
정부, 고용기업·구직자에 지원금
지자체도 취창업 맞춤형 교육 강화

조기퇴직 '황태·동태' 줄이려면
연공서열식 임금구조 개편 필요
강력한 정규직 보호제도 풀어야

채용 시장에서 40~50대 중장년층이 대접받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영향 등으로 청년층이 줄어드는 반면, 노동인구가 대거 은퇴하는 시기가 맞물리면서다.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포털 사이트 울퉁퉁가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가운데 76.5%는 중장년층을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와 지자체는 중장년층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기업과 구직자에게 지원금을 주거나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정년까지 일할 수 있을 것" 40대 34%뿐

3일 정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중장년층 고용 정책은 크게 구인 기업 지원책과 구직자 지원책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의 대표적인 구인 기업 지원책은 2가지다. 하나는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다. 고령 근로자 1명당 매 분기 90만원씩 3년간 총 720만원을 준다.

둘째,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하면 근로자 1명당 매 분기 30만원씩 2년간 총 240만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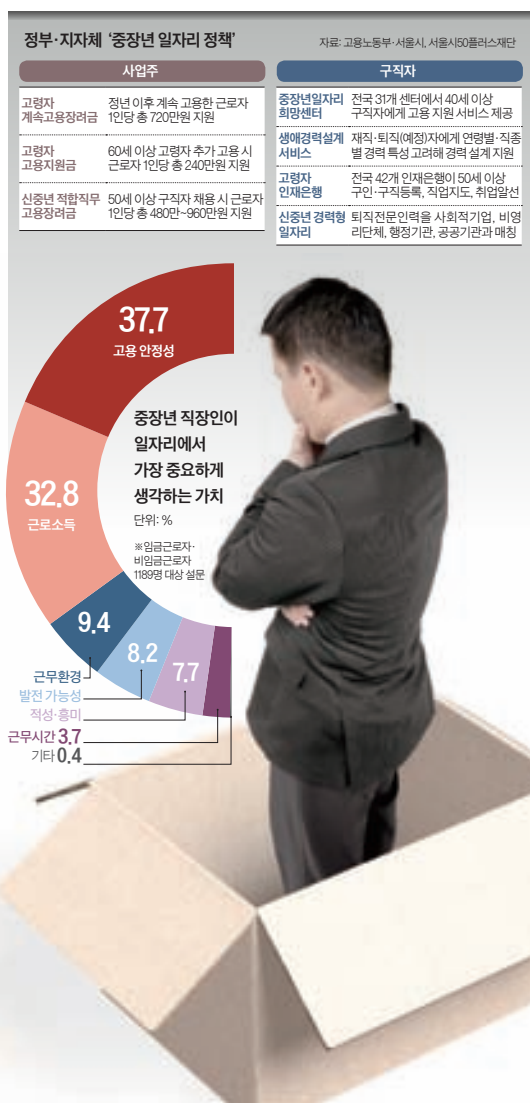
지원한다. 지자체도 4050세대 취·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서울시는 만 40~64세를 대상으로 '4050 직무훈련'을 진행 중이다. 각각 30시간 내외의 5개 과정이며, 훈련비는 모두 무료다.

요즘엔 온라인 기술과 접목하는 추세다. 서울시는 인터넷 강의 교육 지원 플랫폼인 서울러과 연계해 '서울러4050'을 운영한다. 40~50대 서울시민이 가입하면 창업·자격증 등 390여 개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 개인별 맞춤 구인·구직 상담도 가능하다.

인센티브를 내건 지자체도 있다. 부산시는 40~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한 기업이 40~50대 5명을 6개월간 고용하면 최대 22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도 만 40~59세 중장년층 대상 '리스타트 4050 채용 연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장 5개월 동안 월 최대 60만원씩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실제로 취업하면 장려금 80만원을 준다.

서울 일부 자치구는 중장년 취업 지원 기관도 만들었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 1월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신년년 디지털 일자리 센터'를 설립했다. 40~50대 중년층에 마케팅이나 데이터 라벨링 등 디지털 일자리를 알선하고 직업교육도 한다. 자치단체와 민간 금융회사가 협업해 중년을 위한 일자리 센터를 만든 것은 강남구가 처음이다.

정책 효과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년 고령자 고용장려금 실적 분석'에 따르면, 고용장려금 제도 덕분에 정년 근로자 7994명이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 계속 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은 비수혜 사업장보다 60~64세 근로자 고용 효과가 5.8%포인트 높았다"고 설명했다.



다. 이에 중장년층에 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예고 없이 황당하게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뜻의 '황태', 한겨울에 예기치 못하게 퇴직했다는 의미의 '동태' 등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연공서열식 임금 구조와 강력한 정규직 고용 보호 제도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오셀 한국개발연구원 노동시장연구팀장은 "대기업·공공부문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이 연공성(근속연수가 증가하면 자동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경향)을 줄이고, 정규직보다 지나치게 낮은 비정규직 계약종료 비용(퇴직금 등)을 올려야 중장년층이 조기 퇴직하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기관부터 중장년 고용 확대 정책을"

이런 가운데 지자체는 중장년층을 청년으로 편입하고 있다. 중장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 채용시장 등에서 이들의 입지가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에서 나온 교육정책이다. 충북 보은, 경남 남해, 충남 태안에선 45세까지 공식적인 청년이다. 전남 고흥, 경북 봉화, 경남 의령군에선 이보다 나이가 많은 49세까지 청년으로 분류한다. 이들 지자체에선 40대도 각종 청년 정책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도봉구는 조례를 개정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청년 연령을 19~45세로 상향 조정했다. 45세까진 모두 서울청년센터 도봉·청년취업아카데미·도봉청년해외인턴십 등 도봉구 청년 정책 대상이다. 한오셀 팀장은 "정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등 중장년층 고용 확대 정책을 시험 삼아 적용해 보고, 정책 효과가 민간기업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철·한은희 기자**

30년 보험맨도, 50대 출판사장님도 신중년특화 교육... 취업률 67%

한국폴리텍대 진주캠퍼스 가보니
전기·특수용접 등 맞춤형 직업교육
지역 기업 수요 많아 재취업 유리
여성들은 디자인·가죽공예 인기

황희용(56)씨는 "30년간 보험회사에서 지점장까지 하다가 퇴직했다"며 "월급은 상관없다. 70세까지는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시장에서 이른바 '중고 신참'이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폴리텍대학의 맞춤형 직업훈련에 중년층 지원자가 몰린다. 이 대학 전국 40개 캠퍼스와 교육원에서는 이들을 위한 특화 과정을 운영하며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지난 2일 이 대학 진주캠퍼스에서 시작한 신중년특화와 여성재취업 과정에는 24명씩 총 48명이 참여했다. 하반기에도 같은 규모의 과정이 예정되어 올해만 96명의 인력을 배출한다. 맞춤형 직업훈련은 2014년 '베이비부머 훈련'으로 처음 시작했다. 당시엔 21명이 수료했으나, 10년간 4.5배가 됐다. 지원자는 주로 영세사업자·정년 퇴직자·이직자 및 결혼·육아로 경력의

단절된 여성 등이다.

진주·사천 지역에는 항공·기계가공업체가 많고 이들 업체의 구인 수요가 있다. 또 전기·주택관리 업체는 구직자에게 전기 관련 자격증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40대 이상이 지원하는 신중년 특화 과정에는 전기 내선공사, 항공기 부품 가공, 특수용접 등 세부 분야를 뒀다. 대학 측은 "(이들 과정은) 지역 업체의 구인 수요가 많아 재취업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중년특화 과정 교육생의 전기 관련 자격증 취득률은 85%, 취업률은 67.4%였다.

2022년 신중년특화 과정을 마친 김덕권(54)씨는 전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했고, 경남 고성에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취업했다. 그는 진주에서 15년 넘게 행사 전단 제작 등 인쇄·출판업체를 운영하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김씨



전기설비 실습 중인 신중년특화 과정 교육생들. 오른쪽 사진은 교육을 거쳐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업한 김덕권씨. [사진 한국폴리텍대·김덕권]

지난달 13일 오전 경남 진주시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교육2관 전기시퀀스실.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기설비 실습교육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니퍼와 드라이버를 손에 든 교육생 24명은 전선을 콘센트와 차단기, 전구 소켓에 연결하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교육생은 재취업을 위해 다시 배움에 나선 40대 이상 중년층이었다.

교육생들은 경쟁률 2.7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대학 '신중년특화' 과정에 참여했다. 취업 의지 등을 확인하는 면접도 거쳤다. 원래 20명인 정원은 신청자가 많아 24명(120%)으로 늘렸다. 교육생

들은 "전기 자격증이 있다 보니 아파트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 대처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여러 입주주를 대하다 보니 연륜 있는 중장년층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여성재취업 과정 세부 분야는 디자인·전산회계, 가죽공예·인터네트창업 등이다. 그중 디자인·전산회계 교육생인 김은진(32·여)씨는 "SNS(소셜미디어)로 스티커 등을 주문받아 판매하는데, 포토샵·일러스트 등 디자인 프로

그램을 사용할 줄 몰라 시간 외부업체에 맡겼다"며 "교육을 받고 굿즈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해 가죽공예 교육생의 61.4%가 취·창업에 성공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하정미 학장은 "신중년을 비롯해 경력 단절 여성 등이 기술을 익혀 취업에 나선다면 지역 인력난 해소와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안대훈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리스버그 싱글홈	레스틴 콘도	로턴 타운홈	클립턴 싱글홈
\$1,110,000	\$426,000	\$580,000	\$840,000
방5, 화5, 차고2 5289 Sf 잘 관리한 집	방2, 화2, 1076 Sf 굿 로케이션 넉넉한 주차공간	방3, 화3.5, 차고1, End Unit Walk Out, 1층 전체 마루 굿 로케이션	방4, 화2.5, 차고2 새지붕 등 업그레이드 많이함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저세교정 운동 (축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플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시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센터빌, 첼렌더 지역]

역대 정부 어떤 업적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나

최근 한국 현대사에서 역대 정권의 업적에 대해 정리할 기회가 있었다. 역대 정부의 세 가지 업적을 선정하고 그 이유와 의미를 찾아 설명하는 작업이었다.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11번의 정부가 했던 정책들을 살펴야 했다.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하기보다는 10명이 넘는 전문가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자문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견이 없었던 업적들

쉽지 않은 과제였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했다. 잘못을 파헤치는 것보다 '잘한 일'을 찾는 것이 상대적으로 마음이 덜 불편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연구자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비판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찾아 그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기에 '잘한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 역시 적지 않게 부담되는 작업이었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하면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았다. 역사학이나 정치학 전문가처럼 역대 정부의 정책을 가장 넓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 외에 사회학, 의학, 자연과학, 공학, 문화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성별과 연령도 고려했다. 성별에 따라 양성평등 관련 업적에 대한 가중치가 달랐고, 연령에 따라 서로 강조하는 분야에서 차이가 났다.

분야나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의하는 업적들이 있었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나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 의료보험, 전두환 정부의 경제안정화 정책과 서울올림픽 유치, 노태우 정부의 남북한 유엔 가입과 한중수교, 김영삼 정부의 하나회 체결과 금융실명제, 김대중 정부의 금융위기 극복과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신파트너십 선언 등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는 업적이었다.

업적 선정의 어려움

업적을 찾기 어려운 시기도 있었다. 우선 장면 정부(1960-1961)와 최규하 정부(1979-1980)의 경우가 그랬다. 무엇보다도 성과를 내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았다. 장면 총리는 9개월에 채 안 되는 재임 동안 혁명 과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 외에도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 내 신구파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거나 실시하기 어려웠다.

최규하 대통령의 경우 1979년 12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전임 대통령의 유



각 분야 전문가에게 역대 정부의 업적 꼽아달라고 주문했더니 이승만 농지개혁·한미방위조약, 박정희 경제개발은 모두 동의 올림픽 유치, 유엔가입, 하나회 체결, 남북정상회담도 이견 없어 업적 평가 기준, 공동체에서 개인 행복으로 이동하는 경향 뚜렷

고로 인한 과도정부라는 국민적 인식이 컸다. 4·19 혁명 직후의 허정 과도정부와 유사했다. 정부 스스로도 헌법개정 후에는 물러나겠다는 입장이었다. 여기에 더해 12·12 군사정변 이후 강력한 신군부가 정권의 배후를 흔들고 있었다.

업적 선정 과정에는 다른 차원의 어려움도 있었다. 전문가에 따라 강조되는 성과가 서로 다를 때 이를 세 개로 추려내기가 쉽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의 경우 경부고속도로, 그린벨트, 중화학공업화, 군수산업 등에서 세 개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다. 노태우 정부 역시 88 올림픽, 고속철도, 인천공항, 신도시, 한·러 수교 등 중요한 업적들이 적지 않았다.

이견이 나타났던 이유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 업적 선정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사회적으로 이견이 없는 업적을 찾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많은 성취가 있었음에도 사회적으로 이견이 없는 업적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론 이전 정부에 있어서도 평가에 있어 이견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견이 발생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로 지금 시점에서 평

가하기에는 20년도 안 된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 긴 역사를 놓고 볼 때 일정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는 평가가 가능한 업적들이 있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긍정적 방향'이라는 큰 기준을 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만큼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일까?

둘째로 2000년대 이후 사회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어떤 업적이나 사건이든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서로 다른 평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 질병관리본부의 설립 업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가 없었지만, 한미 FTA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의 녹색 성장 정책도 논란이 된 이슈였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시기의 방역이나 신남방정책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었지만, 2017년의 한반도 긴장을 해결하면서 개최됐던 2018년 평창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북미정상회담 같은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주목되었던 이슈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일부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업적도 있었다. 우선 1960년대 이후 과학기술처와 한국과학기술원(KIST),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설립은 과학자들에게 높이 평가되었다. 개발도상국의 발전과정에서 자금과 과학기술의 부족이 가장 중요한 어려움인데, 그중 하나인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면서 경제성장의 초석을 놓는 작업이었다.

1980년대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로 반도체공업 육성계획(1981)을 꼽는 전문가가 있었지만, 더 주목된 것은 해외 여행 자유화(1988)였다. 같은 맥락에서 1980년대 초 교복과 두발 자유화, 통행금지 폐지를 중요한 성과로 선택한 전문가도 있었다. 2000년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주5일제 근무, 호주제 폐지 등이 중요한 업적으로 제기되었다.

2010년 이후에는 아덴만 사건 시 여명작전과 함께 청탁금지법 제정, 대체휴일제 도입에 주목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다. 국민 하나하나의 생명을 중요시하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정책을 부러워했던 한국인들에게 여명작전은 하나의 감동이었다. 대체휴일제 도입은 산업성장 시대의 장시간 근로에서 행복의 시대로의 전환이 엿보이는 부분이었다.

평가 기준의 변화

전체적으로 보면 점차 국민 개인의 행복과 복지에 더 많이 치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복 및 두발 자유화, 해외여행 자유화는 그 대표적 사례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근면하고 장시간 노동을 했다는 성장 신화보다는 이제 주

5일제 근무와 대체휴일 제도가 중요한 업적의 하나로 등장한다.

산업화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성장이 아니라 혁신에 방점을 둔 성장에 더 많이 주목받았다. 과학기술처의 설립이나 반도체 분야로의 산업 전환이 그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아마도 20년 전 교과서를 썼다면 역대 정권의 업적에서 빠질 수도 있는 내용이다.

21세기 이후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한 대응 역시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되었다. 질병관리본부의 설립과 함께 2020년 이후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3대 업적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2016년 정부에 대한 사회적 불만에는 세월호 사건과 함께 2015년의 메르스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역시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사실과 대비된다.

이상과 같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의 업적을 살펴보면 산업화 및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업적과 민주화 이후 나타난 업적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보인다. 민주화 이전의 업적들이 대부분 국가 공동체적 기준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업적들이었다면, 민주화 이후에는 국민 개인의 삶과 관련된 업적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변하지 않는 기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 전체를 포괄하는 공통적인 이슈가 있었다. 바로 평화의 문제이다.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업적들은 시대적 변화와 관계없이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미동맹이나 군수산업의 발전은 전쟁 억지력의 관점에서, 남북 간의 대화와 합의는 그 결과의 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업적으로 주목되었다.

시기에 따라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치지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7·4 공동성명, 1985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1992년 한중수교, 2000년 이후의 남북정상회담은 3대 업적 중 하나 또는 역대 정부의 주요한 성과로 평가받았다. 상대가 정상이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적 정책보다는 억지력의 마련과 대화에 더 후한 점수가 주어졌다.

시대의 변화로 인해 새로 인식하게 된 기준, 그리고 시대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기준은 모두 앞으로 한국의 지도자들이 어떤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박태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약속같은 부동산
비키리

6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시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임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꼭, 약속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 리 브로커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센터빌 타운홈
방3+화2/2+차고2
2004년집,
넓고 환한 엔드유닛

\$650,000

센터빌 타운홈
방3+화2+차고2
H마트 부근

\$560,000

센터빌 타운홈
방3+화3.5
2,184sqft,
2000년

\$730,000

센터빌 콘도
방2+화2+차고1
1,270sqft, 2002년
콘도비 \$463

\$430,000

우리말 바꾸기

설렘일까, 설레임일까?

‘설레임’은 맞는 표현일까? 노래 가사에도 많이 나와 익숙한 ‘설레이는 이 마음’이란 표현을 생각하면 ‘설레임’이나 ‘설레이는’이 문제가 없는 말로 생각하기 쉽다.

‘설레임’과 ‘설레이는’의 기본형은 ‘설레이다’이다. 그러나 ‘설레이다’는 ‘이’가 없는 ‘설레다’가 맞는 낱말이기 때문에 ‘설레이다’를 활용한 말은 모두 바른 표현이 아니다. 따라서 ‘설레다’를 활용한 ‘설렘’과 ‘설레는’이 맞는 말이다. ‘보다→보이다’ ‘놓다→놓이다’ 처럼 ‘설레다’에 피동을 만드는 ‘이’를 붙여 ‘설레이다’로 쓰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설레다’는 애초에 피동 표현이 불가능한 말이다. 마음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지 남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레다’를 ‘설레이다’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넣어 잘못 쓰는 것이 적지 않다. ‘날씨가 개이다’ ‘정처 없이 헤매이다’ ‘목이 메이다’ ‘살을 데이다’에서의 ‘개이다’ ‘헤매이다’ ‘메이다’ ‘데이다’ 역시 ‘개다’ ‘헤매다’ ‘메다’ ‘데다’가 바른 표현이다. 이들의 명사형은 각각 ‘개’ ‘헤매’ ‘멤’ ‘덥’이다.

‘설레임’이나 ‘설레이는’처럼 ‘이’를 추가하는 것은 이것이 더욱 리듬감 있게 발음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후말할 때는 이렇게 하더라도 글을 쓸 때는 ‘설렘’ ‘설레는’으로 바르게 적어야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제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한인 홈리스들이 겪는 이중고



김형재
LA중앙일보
사회부 차장

고집하지 말고 이들을 위한 현실적 도움을 고민해야 한다.

이들은 홈리스가 된 원인으로 ‘실직, 사업실패, 이혼 및 가족붕괴, 중독 및 정신건강’ 등을 꼽았다. 특히 수입이 끊겼을 때 LA 등 남가주 지역의 렌트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민 1세대와 2세대의 홈리스 전략 원인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1세대는 주로 실직 및 사업 실패, 이혼 등으로 홈리스가 됐다고 말했다. 알코올과 도박 등 각종 중독에 빠졌다가 홈리스가 된 경우도 많았다.

반면, 한인 2세는 약물 중독과 정신 건강 문제가 홈리스가 된 주요인이었다. 또 최근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미국에 왔던 중국동포나 탈북 동포 가운데서도 홈리스로 전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한인 홈리스들은 재기 의지가 강하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어려움에 부딪혀 있지만 어떻게든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목표가 있기에 이들은 다른 홈리스들과 달리 옷차림이

나 개인위생에도 나름 신경을 쓴다.

한인 홈리스들은 LA시 등 정부의 홈리스 정책에는 큰 신뢰감을 보이지 않았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이유다. 그들은 한인 사회에는 ‘선입견과 손가락질’ 대신 ‘연민과 공감’의 시선을 당부했다. LA에서 태어난 샘 이(40) 씨는 팬데믹 때부터 차에서 생활했다. 이 씨는 “도어대시 등 음식 배달 일을 해도 경쟁이 심해 한 달 수입은 500달러 정도”라며 “그 별이로는 방 하나 렌트하기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 씨는 “주택가의 홈리스라도 말쑥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될 것 없지 않나”며 “주민들은 우릴 내쫓을 구실만 찾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한인 자원봉사자는 “한인 사회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성장한 만큼 시와 정치인들에 소외된 한인 홈리스를 위한 조치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A한인타운에서 아파트 매니저로 20년 동안 일하다 홈리스가 된 씨니(46) 씨는 팬데믹 때 건물주에게 월급 좀 올려달라고 말했다가 쫓겨났다고 한다. 그는 “한인 식당에 가서 밥이랑 김치만 좀 달라고 해도 매몰차게 ‘안 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며 “누구든 자신처럼 한순간에 홈리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씨니 씨의 마지막 말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홈리스를 마약이나 하는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그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이 아침에

그래도 너희 아버지는



최미자
수필가

아침저녁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낮에는 등살이 뜨거운 햇살, 참 좋다. 뒷밭에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부추를 심어 놓고 매일 그곳으로 향한다. 오늘도 층층이 올려놓은 돌에 걸터앉아 마른 잎들을 다듬으며 부추 한 줌을 따다.

뒷밭에 나와 고개를 돌려보면 여기저기 할 일이 산더미다. 가족들은 몸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잔소리가 심하다.

사실 뒷밭을 가꾸다 보면 허리도 무릎도 아프지만, 그 순간에는 잡생각이 나지 않고 무아지경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나는 정원 일을 좋아한다. 그리고 가끔은 뒷밭 일 중간에 그리움의 고운 구름에 올라타 멍해지기도 한다.

‘아버지 날’ 이 다가온다. 새삼 아버지가 그리운 시기다. 어릴 적 나는 부잡스러운 오빠와 동생 때문에 잘못도 없는데 함께 무릎 꿇고 반성하는 벌을 받곤 했다.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말했으면 그런 억울함은 없었을 터인데, 나름 의리를 지킨다고 그러질 못했다. 어머니는 큰오빠와 작은 오

빠 머리에는 늘 흠이 있었다며 아버지 흉을 보곤 했다. 아버지는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던 분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중학교 때 사 주신 영어 사전을 아직 보관하고 있다. 마치 아버지의 유품 같아서다. 사전의 옆면에는 ‘제일 건강, 제일 계속 노력’이라는 아버지 멋진 글씨가 있다. 나는 잔병치레는 하지 않았지만 몸은 약했기 때문이다.

지천명의 나이를 지나며 아버지가 가꾸던 천정집 꿈을 꾸곤 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그네를, 오빠와 동생을 위해 철봉 만들어 준 작은 마당이

그리웠다. 분홍 찔레꽃으로 덮힌 판자 울타리에는 아버지가 분필로 쓴 시들이 있었다. ‘아름다운 꽃을 꺾지 말고 쳐다보자’

나도 아버지처럼 우리 뜰에서 그렇게 추억을 만들고 있었다. 아버지는 너무 강직한 성격 탓에 어머니와 자식들은 고생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런 아버지의 정신적 유산이 오히려 자랑스럽다. 아버지는 올바르게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했고, 채소를 가꾸고 꽃나무를 심으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아버지 기일이 되면 초벌을 켜며 행복한 회고를 하셨다.

‘불(부처) 효자’라는 영화를 만든 마가 스님의 아버지는 오랜 외도 끝에 늘그막에 본처에게 돌아왔다고 한다. 본처는 그런 그를 용서하며 자녀들에게 “그래도 너희 아버지는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들 같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모든 아버지께 축복을 보낸다.

맛있는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more ▶ www.sk-pest.com

BED BUG

빈대퇴치! ELIMINATE!

▶ 주택 ▶ 식당 ▶ 상가 ▶ 건물

100% SATISFACTION GUARANTEED 에스케이소독 무료 견적 571-992-5789

skpmva@gmail.com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멕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멕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문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이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혜택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채용 공고 미동부 투어 가이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문의: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윈더플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스위스 알프스 **마감**

자연이 만든 웅장한 알프스와 환상적인 자연을 품고 있는 스위스일주

8박 9일 6/18~6/26 \$3,990+항공

북유럽 4개국 **마감 일반**

세계 최대의 복지국가들로 구성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10박 11일 6/28~7/8 \$5,290+항공

캐나다 록키

\$2,290 (항공포함)

5박 6일 6/30~7/5 (독립기념일 특선) **마감**
8/14~8/19 (여름방학 특선)

알래스카 일주 **마감 일반**

마타누스카빙하, 콜럼비아 대빙하, 액시트 빙하 모두 볼 수 있는 기회!

6박 7일 8/15~8/21 \$2,990 (항공포함)

영국 일주

잉글랜드 & 스코틀랜드 & 아일랜드

11박 12일 9/2~9/13 \$5,890+항공

독일 일주

괴테, 바흐 등 독일의 문학, 음악,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

13박 14일 10/3~10/16 \$5,690+항공

정통 서유럽

\$3,490+항공

10박 11일 9/10~9/20 **마감**
10/9~10/19 **마감**

스페인 & 포르투갈 **마감 일반**

리스본, 세비아, 지브롤터, 마하스, 코르도바, 그라나다, 톨레도...

10박 11일 10/8~10/18 \$3,190+항공

프랑스 일주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의 도시를 둘러보는 여행!

13박 14일 10/17~10/30 \$5,690+항공

동유럽 & 크로아티아 발칸

13박 14일 9/18~10/1 \$4,390+항공

독일 일주

괴테, 바흐 등 독일의 문학, 음악,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

13박 14일 10/3~10/16 \$5,690+항공

독일 일주

괴테, 바흐 등 독일의 문학, 음악,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

13박 14일 10/3~10/16 \$5,690+항공

파노라마 서유럽

정통 서유럽에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를 더했습니다.

12박 13일 9/20~10/2 \$3,890+항공

스페인 & 포르투갈 **마감 일반**

리스본, 세비아, 지브롤터, 마하스, 코르도바, 그라나다, 톨레도...

10박 11일 10/8~10/18 \$3,190+항공

프랑스 일주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의 도시를 둘러보는 여행!

13박 14일 10/17~10/30 \$5,690+항공

그리스 & 튀르키예 *산토리니 옵션

지중해의 핵심 두 나라 그리스와 튀르키예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

10박 11일 9/25~10/5 \$2,890+항공

독일 일주

괴테, 바흐 등 독일의 문학, 음악,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

13박 14일 10/3~10/16 \$5,690+항공

독일 일주

괴테, 바흐 등 독일의 문학, 음악,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

13박 14일 10/3~10/16 \$5,690+항공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 6/18~6/26 스위스 알프스 8박 9일 \$3990+항공 **마감**
- 6/18~6/28 고품격 고국일주 2차(영어가이드) **마감**
10박 11일 \$2990+항공
- 6/28~7/08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5290+항공 **마감**
5박 6일 \$2290(항공포함)
- 6/3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마감**
5박 6일 \$2290(항공포함)
-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 8/06~8/19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 14일 \$5990+항공
- 8/09~8/19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5290+항공
- 8/14~8/19 여름방학 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 8/15~8/21 알래스카 일주 6박 7일 \$2990(항공포함) **마감**
5박 6일 \$2290(항공포함)
- 8/30~9/06 알래스카 크루즈 7박 8일 **마감**
인사이드 \$1990~부터 (항공포함)
발코니 \$2590~부터 (항공포함)
- 8/30~9/02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 9/02~9/13 영국일주 11박 12일 \$5890+항공
- 9/10~9/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마감**
- 9/18~9/26 정통 동유럽 8박 9일 \$3290+항공
- 9/18~10/1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 14일 \$4390+항공
- 9/20~1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 13일 \$3890+항공
- 9/25~10/1 크로아티아 발칸 6박 7일 \$2890+항공
- 9/23~10/2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 9/24~10/4 고품격 고국일주 3차 **마감**
10박 11일 \$2990+항공
- 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2890+항공
- 10/03~10/16 독일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 10/08~10/18 스페인&포르투갈 **마감**
10박 11일 \$3190+항공
-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마감**
- 10/14~10/25 호주&뉴질랜드 11박 12일 \$3790+항공
- 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마감**
10박 11일 \$2990+항공
- 10/17~10/30 프랑스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 10/17~10/26 캐나다&뉴잉글랜드 크루즈
9박 10일 \$1190(인사이드)
- 10/22~10/31 튀르키예 성지순례(아시아 7교역)
8박 9일 \$1990+항공
- 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5차(단통특선)
10박 11일 \$2990+항공
- 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 11일 \$3590+항공
- 11/12~11/25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13박 14일(시내선) \$3980+항공
- 11/15~11/25 이스라엘&요르단
10박 11일 \$2980+항공
- 11/27~12/01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 13일 \$1390(인사이드)
-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390+항공
-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 7일 \$2390+항공

한국관광공사 VISIT KOREA YEAR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항공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한국방문의 모든 것!

동남아 여행

3박 5일 방콕/파타야 \$590+항공 3박 5일 대안 \$499+항공

3박 5일 푸켓 \$599+항공 3박 4일 대안 \$690+항공

3박 5일 하노이/하롱베이 \$590+항공 3박 5일 싱가포르 \$790+항공

한국 왕복 비용으로 대한항공 항공권+동남아 여행이 가능합니다!

일본 여행

3박 4일 동경 \$999+항공 8박 9일 일본전일주 \$2690+항공

3박 5일 오사카 \$999+항공

고국건강검진

세브란스(기부검진) 한국국적 남 \$700/여 \$750 미국국적 남 \$910/여 \$975

경희대병원(특허검진) 남/여 \$610

삼성서울병원(기부검진) 남 100만원/여 113만원

한양대학교(기부검진) 남/여 \$460

원대(산별/서울대병원/가천대병원)

미동부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섬/몬트리올/퀘벡 플래스버그/뉴욕

매주 월요일 5박 6일 \$1350

대행버스 출발: 6/24, 7/22, 8/5

뉴욕

1박 2일 \$399

출발: 10/17(목), 18(금), 19(토), 24(목), 10/25(금), 26(토), 11/2(토)

서부관광

미서부의 주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일산 여행

8박 9일 일요일 \$1450+항공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월요일 2박 3일 \$650

대행버스 출발: 7/22, 9/16, 10/7

뉴욕

1박 2일 \$399

출발: 10/17(목), 18(금), 19(토), 24(목), 10/25(금), 26(토), 11/2(토)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 일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일

다aniel

성극

\$199 6/13, 7/11, 8/1, 8/22, 9/19, 10/17, 11/14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월요일 2박 3일 \$650

대행버스 출발: 7/22, 9/16, 10/7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 일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일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월요일 2박 3일 \$650

대행버스 출발: 7/22, 9/16, 10/7

뉴욕

1박 2일 \$399

출발: 10/17(목), 18(금), 19(토), 24(목), 10/25(금), 26(토), 11/2(토)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 일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일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월요일 2박 3일 \$650

대행버스 출발: 7/22, 9/16, 10/7

뉴욕

1박 2일 \$399

출발: 10/17(목), 18(금), 19(토), 24(목), 10/25(금), 26(토), 11/2(토)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 일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일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교육 & 연예/문화 Sports

JoongAng Ilbo

Tuesday, June 4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의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되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f.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조기지원·SAT 응시 대세됐다

2024년 합격 현황으로 본 대입 트렌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려면 최신 대학 입시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올해 아이비리그를 포함해 주요 사립대학들이 입시 전형에 대거 변경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지원자들은 이에 맞춰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 여름방학을 전후로 내년도 대입 지원 사이클이 다시 진행된다. 올해 합격 트렌드를 확인해 스마트하게 내년도 대학들의 입학 정책을 대비하자.

지원자 증가율, 주립대 83%·사립대 47% 대비
지원 늘면서 대학마다 대기명단 활용 많아져

▶정시전형보다 조기 전형
갈수록 조기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증가 추세다. 지원자는 조기 전형에 떨어져도 정시전형을 통해 재도전할 수 있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조기전형 지원자가 늘어나면서 합격률은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정시전형보다는 합격률이 높다.
다만 조기전형 지원 조건 중 하나는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없거나 합격했을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하므로, 정말 원하는 대학을 선택해 지원하는 것이 좋다.
주요 대학들의 조기전형(얼리디시전/얼리액션) 지원자 규모를 보면, 예일대의 경우 지난해 말 7856명으로 1년 전보다 1.45% 증가했다. 펜실베이니아대학(유엔)은 전년도의 8000명에서 올해는 8500명이 넘게 지원했다고 발표했으며, 컬럼비아대학은 전년도의 5738명에서 4.7% 증가한 6009명이 몰렸다.
브라운대는 6244명의 조기 지원자 중 14.4%인 898명이 합격했다. 듀크대 역시 조기전형 합격률이 12.5%에 달한다. 이는 정시전형 합격률(4.5%)의 3배 가량 높은 셈이다.
'어퍼티브트 액션' 소송이 진행됐던 하버드는 올해 예외적으로 조기전형 지

원자가 전년 대비 감소해 합격률이 전년 대비 상승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하버드대 조기 지원자는 총 7921명이었으며, 이 중 692명(8.75%)이 합격했다. 반면 정시 지원자 규모는 5만4008명이다. 합격률은 3.59%다.
▶SAT/ACT 선택항목 부활
경쟁률이 높은 대학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일찌감치 SAT나 ACT 시험을 준비할 것을 권한다. 이는 합격기회를 넓힐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컬럼비아대 등 여전히 SAT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에 없애거나 선택항목으로 변경했던 대입시험(SAT/ACT) 점수 제출 조항을 재도입한 대학이라면 대입시험 점수를 확인하겠다는 뜻을 명시하라.
특히 SAT 점수를 '선택 항목'으로 요구해도 시험 점수를 제출함으로써 본인이 가진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사립대 지원에 제출하는 커먼 앱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지원서 사용자의 절반가량인 41만5000명만 SAT 점수를 제출하지 않았다. 즉, 지원자 2명 중 1명은 여전히 대학에 SAT 점수를 제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대기명단 대학 증가
대학에 미친 팬데믹의 악영향 중 하나



하버드 입학처 직원이 지원서류를 분류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나가 바로 대기명단(Waitlist)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더 많은 학생이 더 많은 대학에 지원함에 따라 대기명단을 더 자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최상위권 대학들도 마찬가지다. 이는 대학을 선택하는 마지막 날까지 등록 인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학은 입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기명단에 지원자를 더 많이 올릴 가능성이 높다.
대기명단에 올라간다는 것은 혼란스럽고 실망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지만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선택지를 평가할 기회이기도 하다. 만약 대기명단에 올라간 학교가 최우선 선택지라고 확신한다면 지원자는 자신의 이름을 대기명단에서 합격자명단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대학에서 알고 싶은 건 '등록해서 다니겠다'는 지원자의 의지다. 입학처에 이를 재강조하는 이메일이나 대입 성적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예(Deferral) 결정도 이와 비슷하다. USC의 경우 올가을 입학에 위해 조기 전형을 지원한 4만1000명 중 3만8000명을 정시전형으로 유예시켰

다. 하버드 대학은 전체 조기 전형 지원서의 83%를 정시로 유예했다. 하버드의 경우 유예 지원자의 합격률은 평균 10%다.
▶주립대 인기 상승
대학을 선택할 때 학생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등록금이다. 재정 전문가들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주립대 학생들은 사립대 학생들보다 5000달러 이상 적게 대출한다. 팬데믹을 전후로 주택시장의 영향을 받아 미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자 비싼 대학보다는 저렴한 학비를 제공하는 대학을 선택하는 지원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커먼 앱 통계에 따르면 미시간 대학이나 버지니아 대학 등 미전역의 주립대에 지원하는 학생이 83%나 늘었다. 반면 사립대 지원서 증가율은 47%에 그쳤다.
이는 UC 지원서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UC 총장실에서 공개한 2024년도 지원서 접수 통계에 따르면 올가을 UC 지원자 수는 25만 명을 넘었다. 신입 지원서만 20만6893건, 편입 지원서는 4만3543건이 접수됐다. 장영화 기자
▶3년 '대입 트렌드'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출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문&박 1984년 창립 합동법률사무소

<문&박 합동법률사무소>는 1984년 이래로 지난 38년간 위신했던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교육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인권위원회, 소수계학생문제 자문위원회 등 지역 주류사회에서도 적극 활동하며, 한인동포 여러분을 위해 정확하고 친절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 오랜 경험

취급 업무 민/형사 소송, 교통사고, 학생/취업/연수/종교/투자 비자, 각종 이민, NIW, 추방재판/면제, 손해배상, 가정법, 사업체/부동산 매매, 영리/비영리 회사설립, 임대차 계약, 고용 관계, 유서 작성, 상속 수속, 이혼, 입양 등

문일룡 변호사
· Harvard 대학
· William and Mary 법과대학원
· 페어팩스 카운티 현 6선 교육위원
· 페어팩스 카운티 Planning Commissioner(전)
· 버지니아 주지사 도시정책 자문위원(전)
· VA, MD, DC 변호사 자격

박상근 변호사
· 서울 법대, 대학원 졸업
· George Washington 법대 법학 석사
· 전 Fairfax County 인권위원회 부의장
· 전 버지니아 주의회 이민난민 정책위원
· 전 북미주 기독교인협회 총연합회 회장
· VA, MD, DC 변호사 자격

임현식 변호사
· 아메리칸대학교 로스쿨 졸업 (Juris Doctor)
· 아메리칸대학교 비즈니스스쿨 졸업
· 전 대한민국 경제 5단체 한국무역협회 소속변호사 (한미통상담당)
· 전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교육청 자문위원 (소수계학생문제)
· VA, MD, D.C. 변호사협회 정회원

우시영 변호사
· Georgetown 법대 법학 석사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주요 일간지 이민 법률 상담 변호사
· 전 아태법률구조센터(APALRC) 법률 통역
· 전 LG에서 채권 및 담보 업무 담당
· VA, NY 변호사 자격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대표전화 703-941-7395 www.moonparklaw.com
7617 Little River Tpk., Suite 800 Annandale, VA 22003

사립대학, 칼리지보드 통해 CSS Profile 요구

학자금 재정보조 극대화...이건 알고 준비하자

대학 진학에서 졸업까지 매년 부담하는 연간 총비용은 사립대의 경우 9만 달러, 주립대는 비거주자의 경우 거의 7만 달러 이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미국은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 시스템을 가장 잘 구축해 놓고 있는 만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킬 수 있다. 대학마다 선호하는 입학사정 방식을 잘 이해해 사전 준비를 잘하면 대학 합격률도 높이고 동시에 재정보조금도 극대화할 수 있다.

워크-스터디, 대부분 연 1500~2500불 지원
재정보조 내역서 검토 중요...3000불 차이도

▶미국대학의 학자금 재정보조

교육부에 등록된 대학은 거의 6000여 개 이상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인증하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보조금을 지원해 집행할 수 있는 곳은 주립대와 사립대를 모두 합해 대략 2900여 곳이다.

재정보조금에는 연방보조금도 포함되므로 연방법에 기초한다. 재정보조금 평가와 진행은 입학사정에 영향을 줄 수가 없고 어떠한 차별도 없는 연방법이 폭넓게 적용된다. 따라서 재정보조금의 평가나 지급은 반드시 형평성과 평등성에 기초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재정보조 신청은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라 불리는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통해 진행된다. 재정보조금 계산은 ①신청서에 제출된 내용과 검증 절차를 거쳐 ②우선 분담할 SAI(Student Aid Index, 학생 보조금 지수) 금액을 계산하고 ③연간 총비용에서 SAI 금액을 제외한 차액인 Financial Need 금액(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 대학의 해당 연도의 평균 지원 퍼센트를 기준으로 재정보조금을 지원한다. 무엇보다 현재 가정 수입과 자산 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재정보조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우 재정 플랜은 부

모의 우선과제이다.

▶재정보조 프로그램 종류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금은 무상 보조금(펠그랜트 및 FSEOG)과 유상 보조금(워크-스터디 프로그램, 학생 용자 및 부모 용자)으로 구성되며, 신청자가 Dependent인지 Independent를 구분해 별도 계산한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연방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랜트로 펠그랜트(Pell Grant)와 FSEOG(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 Opportunity Grant)가 있다. Pell Grant는 최대 지원금에서 SAI 금액과 차액을 지원한다. 2023~2024학년도에는 최고 7395달러, 최소는 750달러 선이다. FSEOG는 연방 정부 장려금으로 펠그랜트 수혜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대학별 최고 4000달러를 지원하지만 제한이 많다.

주정부 보조금은 주마다 큰 차이를 보이며 주정부마다 지원 혜택이 다르다. 대학이 위치한 주정부 신청 마감일을 확인해 유의해 진행한다.

연방정부의 학생 용자는 보조 스테포드 용자(Subsidized Stafford Loan) 혹은 Subsidized Direct Loan)와 비보조 스테포드 용자(Unsubsidized Stafford Loan) 혹은 Unsubsidized Direct Loan) 및 시그니처 용자와 학부모의 플러스 용자(PLUS,



사립대학은 학교마다 별도의 재정보조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한다. 사립대학은 또 기금이 많으므로 이를 잘 활용해 재정 계획을 세우면 좋다.

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보조용자는 졸업 후 6개월까지 연방정부가 이자를 대신 지불하며 졸업 시까지 받은 용자금의 반환을 늦출 수 있다. 졸업 후 6개월 후부터 Bill을 받기 시작해 10년에 걸쳐 모두 완불하게 된다.

워크-스터디 연방정부 프로그램은 대학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학비 충당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4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연간 1500~2500달러 정도 지원된다. 개인 신용점수도 올리며 대학 졸업 시까지 경력도 쌓을 수 있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재정보조 계산방식과 기준

재정보조 대상은 오직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자녀이며, 학업성적은 4.0 기준에 2.0 이상이어야 한다.

DACA와 Undocumented 신분은 해당 주의 주립대학에 진학 시 거주민

과 비거주민 학비 적용기준에 주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해당 연도의 연간 총비용(Cost of Attendance, COA)에서 재정보조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SAI 금액을 산정해 대학의 해당 연도에 정한 퍼센트로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사립대학 등은 FAFSA 제출 내용만으로 자체적인 평가 어려워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 Profile을 요구하며, 대학은 별도의 재정보조 공식을 적용해 자체적인 분담금을 산정한 후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 연방정부, 주정부 및 자체적인 기금과 부모가 지원하는 금액 등으로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사립대학의 기금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재정보조 신청 시 유의할 점

신입생과 재학생의 경우 마감일이 각각 다르므로 대학별로 우선 마감일(Priority Deadline)를 확인해 정기적인 진행 내용과 요구사항을 항상 점검

해야 한다. 매년 재정보조 내역서의 검토는 중요하다. 대학마다 적게 혹은 잘못 지원하는 사례가 많은데 연간 3000달러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전략적인 어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녀에게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을 모두 맡기면 대부분 재정보조 공식과 대학의 변동 사항에 대한 대처가 부족해 낭패를 보기 쉽다. 작은 실수도 연간 수천에서 수만 달러의 보조금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

▶사전 설계의 중요성

대학이 선발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다양한 장학금과 재정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략적인 대학 선택도 재정보조금을 높여주는 요소이다. 무엇보다 합격률을 높이려면 지원하는 대학별로 입학사정 요소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입학원서 내용을 모두 점수화해 입학사정에 적용하는 텍소노미 방식을 잘 이해하기 바란다.

이에 따른 자녀의 프로필을 잘 보강해 놓아야 합격률도 높이고 등록을 선호하는 학생으로 평가되어 재정보조를 더 잘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정보조 극대화는 사전 설계로만 가능하다. 개인의 W-2 상에 나타나는 401(k), IRA, SEP IRA, 403(b) 등과 Roth IRA 및 학자금 저축플랜인 539 Plan, Education IRA 및 Coverdell Savings Account 나 Prepaid Tuition Plan 등은 오히려 SAI 금액을 크게 증가시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는 반드시 대학별 재정보조 데이터와 사전설계 능력이 있는 Corporate Trust를 다룰 수 있는 라이선스가 검증된 재정전문가와 상담을 권유한다. 사전 준비 없이는 가정의 재정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리처드 명 재무사 (AGM Institute 대표·재정보조 컨설턴트)

엮히고설킨 실타래, 마음타래



한원목의 과학 산책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표현은 여러 경우에 쓰인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 여러 변수가 얽혀있어 판단 내리기 어려울 때 등 누구나 접해보았을 상황이다. 그런데 '복잡'이란 단어는 상당히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복잡계 과학'이란 말

도 있다. 예로 엮긴 실타래를 생각해 보자. 실이 별 규칙 없이 엮히고설켜 있다. 실이 아니라도 전깃줄이건 선물 포장용 리본이건 엮긴 것을 풀다는 면에서 비슷한 범주의 문제이다.

실 가닥의 끝이 보일 경우 이것을 꼬인 실 사 이로 참을성 있게 꾸준히 빼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다 풀 수 있다. 하지만 실이 아주 길거나 끝이 연결된 고리들이 뭉쳤을 경우 한 가닥만 쫓아 가는 것만으로는 푸는 것이 실질적인 불가능

에 가까울 수 있다.

반면 일반적으로 꽤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아무렇게 엮긴 실타래를 아무렇게 여기저기 살살 잡아당겨 전반적으로 느슨하게 만들고 나면 훨씬 풀기 쉬워진다. 이열치열의 원리다. 당장 손끝에 잡힌 한 가닥에 매달리지 않고 엮긴 실타래 전체의 상태를 풀기 좋게 바꾸는 작업이다. 중요한 것은 '살살'에 있다. 너무 힘을 주면 잡아당긴 곳은 느슨해지지만 다른 곳들은 더 조이게 된다.

엮긴 실타래 풀기는 마디마디 발생하는 마찰력을 이기고 제한된 공간 사이로 실 가닥을 움

직여 풀린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이다. 느슨해지면 마찰력과 공간의 제약 둘 다 줄어들어 풀기 쉬워진다. 정량적 분석은 안 해도 이 지식은 복잡한 머릿속에도 적용할 수 있다. 뇌 신경망 신호들의 패턴이 엮긴 실타래처럼 특정 상태에 몰려있는 것일 테다. 이를 느슨히 만드는 것은 긴장을 풀고 차분·침착해지는 것으로 이룬다. 이러면 실이 풀리듯 생각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 엮긴 실타래 풀기가 더 복잡한 뇌 활동에 대한 지극히 간단한 모델이 되겠다.

텍사스A&M대 생명공학부 교수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메디메디를 위한 다양한 혜택
- / 저렴한 약 값을 위한 회사별 비교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플랜
- /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앤디 김

VA Lic# 639047



대표 정희수 703.477.3114

부동산 최고의 권위!

현대부동산

주택 매매(주거용, 투자용) 상업용 부동산 매매 법원 경매(Auction)

정성을 다하여 모십니다

- ★ 과거, 격주 수요일 AM 1310 기쁜소리방송 라디오 부동산 상담 (11:00am~11:30am)
- ★ 수년간 매주 토요일 WK-TV 부동산 하이웨이 진행함
- ★ 수많은 부동산 Seminar 개최



Principle Broker 세리 린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의대 합격선 뚝... '언더독' 일반고도 길 넓어진다

비수도권 의대 26곳 지역전형 분석

지역인재 선발 늘며 합격선 하향
전통 명문고 쏠림 앞으로 더 커질 듯
업계 "지역수혜 현상 더 강화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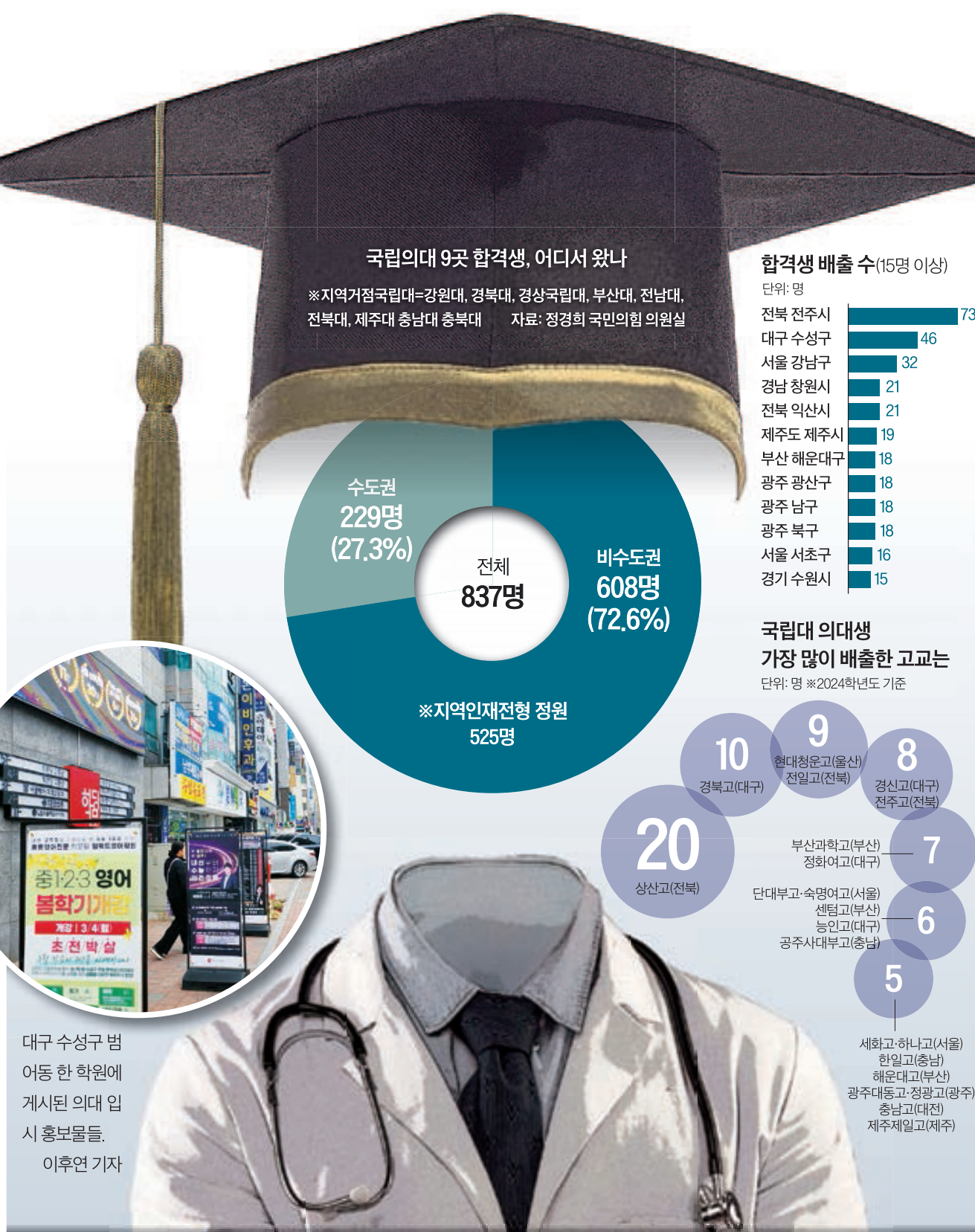
"우리 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고 하면 의대, 어디든 다 보내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늘겠지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경신고 김진수 진학부장은 두툼한 진학 실적 자료를 펼쳐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경신고는 수년간 대구뿐 아니라 전국에서 의대를 많이 보낸 고교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다. 올해 입시에서도 재수생을 포함해 40명 넘는 학생이 의대에 갔다. 김봉준 경신고 교장은 "서울 강남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진학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며 "지역인재전형이 늘어나면 앞으로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9곳의 지역거점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지역인재전형 모집정원이 크게 늘면서 지역 고교·학원가가 들썩이고 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는 의대 입시가 지역 위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4학년도까지만 해도 의대 지역인재 모집정원은 1068명으로 전체 지역 의대 정원(1983명)의 53.9%였다. 올해 모집하는 2025학년도에는 1910명 선까지 늘어난다. 전체 지역 의대 정원(3111명)의 61%가 넘는 수준이다. 2000명이 증원되는 2026학년도에는 지역인재 선발 인원은 2238명으로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입시업계에서는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지역 수혜' 현상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중앙일보가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2025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을 권역별 일반고교 수와 비교한 결과, 지역에 따라 고교당 평균 1.6명(제주)에서 2.7명(충청)까지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를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학년도만 해도 고교 평균 0.8명(강원)에서 최대 1.4명(호남)의 의대를



맞추려면 학업 분위기가 잘 조성돼 있는 학교가 유리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김 진학부장은 "방과후 수업도 수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1·2학년 교사들은 학생부 기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따로 받고 있다"고 했다.

명문고로 불리지 않았던 이른바 '언더독'(스포츠에서 우승이나 이길 확률이 적은 팀이나 선수) 일반고들도 넓어진 지역인재전형 문을 통해 의대 진학을 노리고 있다. 김형길 부산 남성여고 교장은 "지역인재전형 중에서도 내신 1등급대 학생들이 경쟁하는 학생부 교과전형, 저소득층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한 기회균형 등 틈새를 잘 노리면 학군지가 아닌 일반고에서도 의대 진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역의 사교육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최근에는 강남의 유명 입시업체인 시대인재가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분점을 내기도 했다. '대구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범어동에 등록된 입시학원 수는 올해 기준 562개다. 범어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지난해 말 부동산 침체기 때는 아파트 전세·매매 가격이 쪽쪽 빠졌는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들리고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많이 회복했다"며 "애들이 입학하는 3월 전에는 서울, 대전 이런 데서 집 보러 온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다.

'천안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천안시 불당동의 학원가 거리도 의대 증원의 열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천안의 대치동'으로 이주는 시작했다" "의대 증원 최대 수혜 지역" 등의 광고 문구를 내걸며 학생들을 모집하는 곳이 있었다. 충청권은 서울 학부모들에게 일종의 지방 유학 '남방한계선'처럼 여겨지는 곳이기도 하다.

서울의 한 중등학생 학부모는 "SRT나 KTX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하기 쉽기 때문에 천안 정도는 부담이 없다"며 "대치동에 있는 유명 학원 분점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 부모가 좀 고생해서 통근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이후연·최민지 기자

갈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증원의 효과로 합격선이 크게 내려갔다. 충청권의 경우 증원 전에는 전교 1.1등이 의대 진학권이었는데, 2025학년도는 전교 2.7등까지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의대 진학을 노려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서울의 한 고교 진학상담 교사는 "재수생 수도 있는 데다 학교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산하긴 어려운 문제지만,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많이 늘어나 충청·강원 등 수혜를 보는 지역이 있을 수밖에 없

다"며 "해당 지역의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이제 의대 지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역의 전통적 명문고 쏠림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의대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능 최저 기준을

재학생은 1094달러를 쉐그랜트로 받고 있다. 이외에도 거주 정부는 연 소득 11만 달러 미만 중산층 가정 학생에 평균 32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성적에 따라 자녀가 있는 학생일 경우 연평균 4000~6000달러의 생활비도 보조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 1번 '대입 트렌드'에서 이어집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은 UCLA에는 무려 9만2290건이 몰렸고, UC 어바인에 8만7517건, UC버클리에 7만2697건이 각각 제출됐다.

현재 사립대 학비 수준은 10만 달러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 장학금 없이 4년간 학비를 꼬박 낸

다면 40만 달러가 들어간다는 뜻이다. 학비는 등록금과 기숙사비, 식비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한 예로 유젠의 경우 올 가을부터 연 9만2288달러를 내야 하며, 코넬대는 9만2150달러, 다트머스는 9만1312달러다. 그나마 하버드 대학은 8만2866달러로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학비가 가장 낮다.

반면 주립대는 거주민 학생들에게 저렴한 학비를 제공한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경우 UC, 쉐스테이트(CSU), 커뮤니티칼리지 학생들에게 무상 학비 보조금인 쉐그랜트로 지원하고 있다. 거주학생지원위원회에 따르면 UC 재학생의 경우 연간 평균 1만3752달러를 쉐그랜트로 받을 수 있으며, CSU 재학생은 5742달러, 커뮤니티칼리지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중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끌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에듀 포스팅

여름방학엔 부족한 과목 보충 최우선...SAT 준비·인턴십·봉사활동도 챙겨야

많은 학교가 곧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학년마다 여름방학이 주는 의미는 다르겠지만, 여름방학은 고등학생에게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대학 준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학기 중보다 자유로운 시간을 활용하여 아카데미 준비, 개인적인 성장, 여행 계획 등을 세울 수 있다. 다음은 여름방학 동안 고려해 보아야 할 체크리스트이다.

1. 아카데미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성적이다. 9학년이 되는 고등학생들은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인 Biology 수업을 미리 선행 학습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만약 지난 학년에 부진했던 과목이 있다면, 다음 학년의 성적을 올리기 위한 아카데미 계획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내신 성적이 좋더라도 한 과목 정도는 미리 선행 학습을 해두면, 학기 중 많은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여름방학에 다음 학년에 수강할 과목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과목을 선행 학습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학교에 따라 여름에 수강한 온라인 또는 컬리지 클래스가 내신 성적에 포함될 수 있으



로, 부족한 내신 성적을 올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2. SAT 준비

많은 아이비리그 대학과 명문 대학들이 SAT를 필수로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 SAT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여름에 SAT 준비만 하는 것은 학생의 이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SAT 준비에만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공부 이외 학생의 모습을 개발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

다. 만약 SAT 공부를 계획한다면 너무 많은 시험 계획보다는 두 번 정도의 시험을 목표로 하고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3. 인턴십과 파트 타임 경험

인턴십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성장을 할 수 있으며, 경험을 통해 잠재적인 진로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대학,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 등에서 자신이 열정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파트타임 일자리도 직업윤리, 시간 관리 및 책임감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4. 다양한 여름 프로그램 참여

여름방학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입학사정관이 학생을 파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학생의 관심사와 열정을 파악할 수 있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수학에 관심이 있다면 SUMaC(Stanford Math Camp), AwesomeMath, The Ross Mathematics, PROMYS, COSMOS 등 다양한 수학 캠프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 예를 들어 Biology, Chemistry, Physics 등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

는 여름 캠프에 참여하여 교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실습과 강의를 경험할 수 있다. 언어에 관심이 있다면, 국내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Travel for Teens 같은 프로그램은 여행과 언어 습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5. 봉사활동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맞추어 지역 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경험을 얻으면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할 기회이다.

6. 개인적인 개발 및 취미

여름은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뛰어들기 좋은 시기이다. 그림, 글쓰기, 사진, 음악 활동, 스포츠 등 창의적인 활동의 시간을 쏟는 것은 많은 성취감을 줄 수 있다.

7. 독서

고전문학, 현대소설, 논픽션을 혼합하여 여름 독서 목록을 만들어 지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 영어 수준을 높일 기회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으며 많은 학교에서는 여름 독서 리스트를 제공하므로 독서 목록을 참고하는 것도 좋다.

수변 원장·보스턴 에듀케이션

커리어 코칭

기술만으론 재정 안정성 확보 어려워...시스템 개발해야 수익성·확장성 확보

기술 개발도 좋다. 그러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더 좋다.

2024년 내 비즈니스의 전문적인 목표는 시스템 구축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현재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순하게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것과 동일한 때가 많다.

이 접근 방식은 하루에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잠재 소득을 제한한다. 이 제한은 의사나 컴퓨터 과학자와 같이 고객 임금을 받는 전문가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내실 있는 성장과 부의 창출의 핵심은 견고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 거대 기업을 살펴보자. 맥도날드는 단순히 버거를 파는 곳이 아니라 식품 생산과 유통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스타벅스는 그저 커피 전문점이 아니라 일관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두각을 나타낸다. 아마존은 단순한 소매를 넘어 효과적인 상품 배송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진화했다. 이들의 기업 가치는 단순히 제품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일관성 및 지속 가능성에 있다.

이제는 미국 교육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을 강조한다. 숙련된 근로자를 배출하는 데에는 뛰어나지만 장기적인 비즈니스 성공에 필수적인 비전 있는 시스템 구축자를 양성하는 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숙련된 근로자는 풍부하지만 수익성과 확장성을 가진 시스템을 개발할 능력이 있는 개인은 부족하다. 그 결과, 청년들이 기업의 전통적인 직원으로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관심을 가진 의식과 확장 가능한 시스템 구축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시작하기 위한 몇 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다.

▶기업가 교육을 추구하라
기업가 정신과 경영학 과정을 추구해야 한다. 비즈니스의 기본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한다. Coursera, LinkedIn Learning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업계 전문가들의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시스템을 분석하라
성공한 기업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대한 조언을 구하자. 비즈니스 행사에 참석하고 조직에 가입하며 시스템 개발과 관리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멘토를 찾아 나서야 한다.

▶실제 경험을 찾아라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진 기업의 인턴십 또는 파트타임 근무를 통해 이론적인 연구가 제공할 수 없는 실질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 될 수 있다.

▶멘토를 찾아 네트워크를 형성하라
성공한 기업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대한 조언을 구하자. 비즈니스 행사에 참석하고 조직에 가입하며 시스템 개발과 관리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멘토를 찾아 나서야 한다.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라
시스템 개선에 중요한 혁신적 사고와 문제 해결 기술을 길러야 한다.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비효율성을 발견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작게 시작하여 배우고 적응하라

소규모의 프로젝트로 시작하자. 작은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만들어 시작하면 다양한 비즈니스 요소를 응집력 있는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진정한 배움은 실수하고, 적응하며 시스템 구축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실제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나는 학생들이 순전한 기술 중심의 교육 사고방식에서 시스템 사고의 복잡성과 이점을 인식하는 사고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기술 개발보다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는 것이 재정 및 직업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이 접근 방식은 개인이 경제 환경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방향을 정하는 힘을 주어 더 큰 자율성, 혁신 및 장기적인 성공으로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제임스 박 대표·LA 커리어 코칭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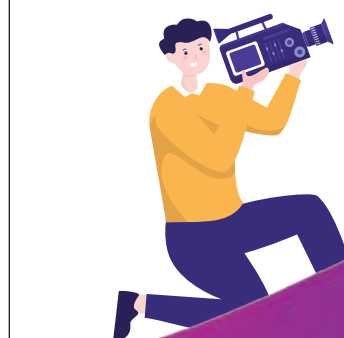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Bank of Hope 와 함께 하는

43rd 중앙일보 Student Art & Video Contest

학생미술·영상공모전



제43회 학생미술·영상공모전 이렇게 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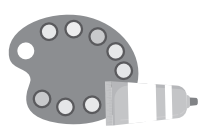
- ✓ 온라인 출품 시스템 (미주 전 지역에서 온라인 출품 가능)
- ✓ 아시안 최대규모 시상 및 장학금 수여 (총 241명 / 총 11,700 불)
- ✓ 미술부문 최대 3 작품까지 출품 가능 (주요상 제외 중복 입상 가능)
- ✓ 영상부문 8학년 이상 (개인, 팀(최대 4인)단위로 참가 가능)

작품 접수

접수기간:
2024년 5월 20일(월) ~ 7월 7일(일)

참가비 안내

\$20 (참가자 전원 기념품 제공)
Bank of Hope 고객 50% 할인 /
10인 이상 단체 10% 할인 (중복 할인 없음)



미술 부문

- 참가대상 프리스쿨 ~ 12학년 (현재 학년)
- 작품주제 자유 주제
- 참가부문 유치부 (Preschool ~ kinder)
초등부 저 (1~2 학년)
초등부 고 (3~5 학년)
중등부 (6~8 학년) 고등부 (9~12 학년)
- 작품규격 제한 없으나 기재 필요
(태블릿 드로잉 허용) (3D 조각, 조형물 제외)



영상 부문

- 참가대상 8 학년 ~ 12 학년 (현재 학년)
- 작품주제 희망 (Hope)
- 참가부문 개인, 팀(최대 4인) 단위 참가 가능
- 작품규격 영상길이
(1~3 분, 16:9 가로비율)

총 시상
241명

시상금
총 만불 이상

시상내역

상 명	부 문	미술부문		영상부문	
		수상인원	시상금	수상팀(전부문)	시상금
대상	초등 이하	1명	\$1,000	1팀	\$500
	중등 이상	1명	\$1,000		
1등	각 부문 (1명)	5명	\$300	2팀	\$300
2등	각 부문(3명) 중고등부(6명)	21명	\$200	5팀	\$200
3등	전 부문	70명	\$20	15팀	\$20
4등	가작	100명	상장	20팀	상장

*영상부문 인기상 1팀 \$200



세부 정보 및
온라인 참가 신청
artcontest.koreadaily.com

문의:
213-368-3723 (2577)
(중앙일보 교육연구소)

Sponsored by  Bank of Hope

Hosted by  The JoongAng

레알에 15번째 챔스 우승 안긴 '택배 크로스'

‘압도적 실력을 갖춘 유럽 축구의 왕’ 스페인 마르카는 2일(한국시간) 올 시즌 유럽 프로축구 왕좌를 차지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를 이렇게 표현했다. ‘전통의 강호’ 레알 마드리드는 이날 영국 런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돌풍의 팀’ 도르트문트(독일)를 2-0으로 완파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29분 다니 카르바할이 선제골, 후반 38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썩기 골을 터뜨렸다.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는 크로스(가운데)와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 크로스가 마드리드에 서 된 마지막 경기였다. [AFP=연합뉴스]

면서 챔피언스리그 개인 통산 최다 우승 기록을 세웠다.

크로스는 2007년 뮌헨에서 프로에 데뷔했다. 그런데 뮌헨이 2014 브라질월드컵 우승의 주역인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2014~15시즌을 앞두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다. 당시엔 뮌헨도 크로스를 붙잡지 않았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크로스는 이날까지 465경기에서 28골 99도움을 기록하며 레전드의 반열에 올랐다. 공교롭게도 뮌헨은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크로스가 이끄는 레알 마드리드에 저 탈락했다. 크로스는 “6번째 우승이 믿기지 않는다”면서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한 뒤 (레알 마드리드와)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다”며 기뻐했다.

크로스는 마지막 도전을 남겨뒀다. 오는 14일 독일에서 개막하는 2024 유럽축구선수권(유로 2024)에서 조국 독일대표팀을 이끈다. 그는 2021년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했지만, 부진에 빠진 독일을 구하기 위해 지난 2월 3년 만에 대표팀에 복귀했다. **피주영 기자**

이로써 레알 마드리드는 2021~22시즌 이후 2년 만이자 통산 15번째 ‘빅이어(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 애칭)’를 들어 올렸다. 당분간 깨지지 어려운 기록이다. 이 부문 2위(7회 우승)인 AC밀란(이탈리아)과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우승 상금은 2000만 유로(약 300억원)다. 마르카는 마케팅과 중계권료 수입 등을 더하면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챔스리그에서 8450만 유로(약 1270억원) 이상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AC밀란 2003~07년, 레알 마드리드 2014~22~24년)을 차지했다. 감독으로는 역대 최다 우승이다. 이미 4회 우승 당시 사령탑 최다 우승 기록을 세웠던 안첼로티 감독은 우승 횟수를 늘리며 팀과 함께 우승 기록을 갈아치웠다.

레알 마드리드는 한 수 아래로 여겼던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좀처럼 골문을 열지 못했다. 선 수비 후 역습 전략으로 나선 도르트문트를 맞아 후반 중반까지 고전했다. 답답한 흐름을 깬 건

이날 경기를 끝으로 프로 무대에서 은퇴하는 베테랑 미드필더 토니 크로스(34·독일)의 정교한 킥 한 방이었다. 그는 코너킥 상황에서 정확한 오른발 ‘택배 크로스’로 카르바할의 헤딩 골을 어시스트했다.

선제골을 터뜨린 레알 마드리드는 이후 경기 주도권을 쥐면서 승리를 굳혔다. 축구 통계 사이트 풋몹은 결정적인 도움을 기록한 크로스에게 양 팀 통틀어 최고인 평점 8.5점을 줬다. 크

로스의 패스 성공률은 무려 97%(94회 시도 91회 성공)나 됐다.

크로스는 2010년대 최고의 미드필더를 꼽을 때 첫손에 꼽히는 레전드다. 경기 흐름을 읽는 눈과 킥 능력이 발군이다. 팬들은 상대 선수들을 한 수 지도하는 듯 침착하고도 여유 넘치는 플레이를 펼치는 크로스에게 ‘교수남’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크로스는 팀 동료 모드리치, 나초 페르난데스, 카르바할과 함께 나란히 6회 우승을 달성하

“괴물은 존재하지만 그 수가 적다. 더 위험한 건 질문 없이 (사키는 대로) 믿고 행동할 준비가 돼있는 평범한 사람, 공무원이다.”

유대계 이탈리아인 화학자 프리모 레비(1919~1987)는 아우슈비츠 유대인 강제수용소에서의 10개월을 저서 『이것이 인간인가』(1958)에서 이렇게 요약했다.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5일 개봉)는 이런 ‘악의 평범성’을 소름끼치게 그려낸 작품이다. 라디오헤드·자미로콰이 등의 뮤직비디오, 광고, 영화를 넘나든 유대계 영국 감독 조나단 글레이저(59)가 ‘언더 더 스킨’(2014) 이후 10년 만에 내놓은 영화다.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올초 아카데미 국제장편영화상·음향상 등을 휩쓸었다.

다섯 자녀를 둔 젊은 가장 루돌프 회스(크리스티안 프리델)는 폴란드의 천상의 화원 같은 아름다운 사택에서 아내 헤트비히(산드라 휠러)를 여왕처럼 받들며 가족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무한다.

그런데 이 영화의 시대 배경은 제2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꽃이 만발한 나치 장교 루돌프 회스 부부의 그림 같은 일상으로 잔혹한 진실을 그렸다. [사진 TCO(주)더콘텐츠원]

아우슈비츠 지옥 옆은 낙원?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 5일 개봉 나치장교 가족, 풍요로운 삶 통해 악의 평범성 소름끼치게 그려낸 칸·아카데미서 잇달아 상 휩쓸어

차 세계대전이다. 회스가의 담장 너머는 당시 400만 유대인을 집단 학살한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이고, 루돌프

는 바로 이 악명 높은 수용소의 소장인 독일 나치 장교다. 나치는 아우슈비츠를 둘러싼 40km² 지역을 ‘존 오브 인터레스트’(관심 지역)로 불렀다.

영국 작가 마틴 에이미스의 2014년 동명 소설에서 착안한 영화는 더 효율적인 유대인 ‘소각 시스템’을 고민했던 루돌프를 인정육구에 사로잡힌 위커홀릭(일 중독자)으로, ‘아우슈비

츠의 여왕’으로 불리는 헤트비히를 결혼생활에 성공한 노동자 계급의 딸로 묘사했다. 가해자를 악마화한 여느 홀로코스트 작품들과 반대로,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잘 살려고 애쓰는 한 가족의 초상을 그렸다. ‘우리과 다른 인간들’로 손쉽게 선 그어온 역사 속 악당들이 우리와 닮은 인간이란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단란한 가족의 평온

한 일상은 구역질 치미는 공포 장면이 된다.

‘원들러 리스트’(1993) 이후 유일하게 아우슈비츠 현지 촬영을 허가받았고, 독일 명배우 크리스티안 프리델, 산드라 휠러가 처음으로 나치 역할을 수락했다.

방대한 양의 역사 자료,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박물관이 보유한 생존자 증언을 “고고학자가 유물 발굴하듯” 재구성하며 영화를 완성했다. 글레이저 감독은 영국 가디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어릴 적 런던 북부 교외 지역인 하들리우드의 유대인 예술가 공동체에서 자랐다”고 밝히며 “이 영화 연출을 결심한 이후 10년 간 깊은 분노를 좇아왔다”고 말했다.

밤새 쉬지 않는 소각장의 붉은 열기와 함께 화면 밖에서 침투하는 사운드도 인상 깊다. 영화 ‘가여운 것들’ ‘놈’ 등을 작업한 사운드 디자이너 조니 번이 아우슈비츠 상황에 대한 600쪽 분량의 연구를 토대로 2022년 파리 폭동의 비명·고함, 기차·총소리 등 1년간 전 세계에서 수집한 고통의 사운드를 활용해 빚어냈다. **나원정 기자**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Jaewoon Lee & Associates, LLC | T. 703-916-1111 / 703-916-1215 | Fax. 703-563-6028
E-mail : lee@jaelaw.com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건너편)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 경제적인 보험!**
-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THE SIXTH SENSE

식스센스

오늘의 주제 거짓말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6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광고는 출광료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지요?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AWARDED
Porch.com
HomeAdvisor
Best Home Improvement Contractor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Since 1988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 ▶ 욕,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 ▶ 플로밍,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93-209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귀국, 타주 차량운송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신속 안전 20년 전문!!
신용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Golden Dew Jewelry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I.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the full effect: 최대한의 효과

(Dan is talking to his son Gabriel~)

(댄이 아들 개브리얼과 얘기한다~)

Dan: Is tonight your second date with Katie?
 댄: 그럼 오늘이 케이티와 두 번째 하는 데이트니?
 Gabriel: Yes and I'm a little nervous.
 개브리얼: 네 그래서 좀 떨려요.
 Dan: That's okay. That's to be expected. Are you taking her out to dinner?
 댄: 그거야 괜찮아. 당연히 그럴 거야. 저녁 대접 할 거니?
 Gabriel: No, we did that on our first date. I thought I'd invite her to my apartment and make her dinner.

개브리얼: 아뇨, 그건 처음 데이트 때 그렇게 했구요. 저희 아파트에 초대해서 저녁 만들어주려고요.
 Dan: Very good. What are you going to make?
 댄: 좋네. 뭘 만들 거니?
 Gabriel: I'm going to bake some fish.
 개브리얼: 생선 요리요.
 Dan: Play some soft music. That's always a nice touch.
 댄: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봐. 음악 트는 건 언제나 센스있는 일이나가.

Gabriel: I bought some flowers to spruce up the dinner table.
 개브리얼: 식사테이블을 꾸미려고 꽃도 좀 샀어요.
 Dan: And light some candles for the full effect.
 댄: 완벽한 효과를 위해서는 촛불도 켜고.
 Gabriel: Thanks dad. I'm learning from an old pro.
 개브리얼: 아빠 고마워요. 노련하신 프로에게 배우네요.

▶ that's to be expected: 이상할 것 없는 일이지 당연하죠
 Son: "I was nervous when I took my driver's test."
 (운전 면허시험 보는데 전 떨려서 혼났어요.)
 Father: "That's to be expected. Everyone gets a little nervous taking that test."
 (그거야 당연하죠. 그 시험 볼 때면 누구나 약간씩 긴장합니다.)

기억할만한 표현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가로 열쇠

(1)암컷과 수컷, 승부, 우열, 강약 따위. ~을 겨루다 (2)돈을 지키는 노예. 돈을 모을 줄만 알고 쓸 줄을 모르는, 매우 인색한 사람 (4)아직 피지 아니한 어린 꽃봉오리. 꽃~이 부풀어 오르다 (5)텐트 따위를 치고 야외에서 먹고 잠 (6)집안 살림의 수입과 지출을 적는 장부 (7)높은 온도로 광석을 녹여서 쇠불이를 뽑아내는 가마 (9)말이나 소의 등에 잔뜩 실은 짐. 짐을 진 사람들과 곡식 ~는 먼저 떠났다 (10)구속 하였던 사람을 풀어 줌 (13)까마귀 날자 배 떨어짐.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음 (15)규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너무 가볍게 처리하는 일. ~ 처벌 (18)아주 길어 들어서 몸에 익숙하게 된 짓

이나 버릇 (20)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점포 (21)고래를 잡는 배 (23)같은 뜻을 가지고 모여서 한패를 이룬 무리 (24)기억할 수 있도록 외움 (25)액체에 둘러싸인 기체방울. 기포 (26)기암괴석의 산체가 빠져처럼 드러난다는 뜻으로 겨울의 금강산을 이르는 말 (27)얼굴을 곱게 꾸미는 일

●세로 열쇠

(1)개인의 가정에서 전용하는 자동차 (2)물속에서 헤엄치는 일 (3)명태의 새끼 (4)멀리 떠난 남편을 기다리다가 죽어서 변한 돌 (5)우물쭈물하는 속셈이나 수작. 그의 태도로 보아 이번 일에는 분명히 무슨 ~가 있다 (8)전기료와 연료비 (9)부피가 매우 큰 돌 (11)

나무를 둥그스름하고 길게 깎아 만든 것. 가는 ~ 오는 흥두께 (12)방을 따뜻하게 함 (13)남매 (14)벼, 보리 곡식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부분. 그는 마당에서 도리끼를 들고 곡식의 ~을 두드려서 낱알을 떨어내고 있었다 (16)멀리 있는 물체를 크게 보는 확대경 (17)말린 쥐치를 납작하게 눌러 만든 것 (19)오래되었거나 희귀한 옛 물품 (20)여자들이 몸치장으로 한복 저고리의 고름이나 치마허리 따위에 다는 물건 (21)뿌리를 단위로 한 초목의 날개를 세는 단위 (22)배가 와서 닿는 곳. 나루터 (24)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계산함. 속셈. 세 살밖에 안 되는 우리 조카가 8×7×5를 ~으로 풀었다.

스도쿠

8		6		9	3			
4				7		9		
9			6			8		
5	4			7			9	
3	8						7	1
	6				1		5	2
		8			4			9
		7		6				4
			3	8		2		5

자료제공=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5	9	2	2	8	3	4	6	1
4	8	1	5	9	6	2	3	7
6	3	7	4	1	2	8	5	9
2	5	4	1	3	8	6	9	7
1	7	9	6	5	4	2	8	3
8	6	3	9	2	7	1	4	5
3	1	8	2	4	9	5	7	6
9	2	6	8	7	5	3	1	4
7	5	4	3	6	1	9	2	8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EXP. DATE: / / month year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애틀랜타

매매 매매

성업중인 옷수선가게
 토렌스 PV지역 가 3만5천
 년매 8만 (310)935-8925

수영장 청소권 매매
 팔로스버디스/토렌스
 (818)926-2095

한식당 매매
 한국 BBQ 식당
 테네시 주 위치
 매매가 69만불
 텍스트로 먼저 연락 요망
 (949)422-8332

꿈을 위한 도약
 중앙안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Hello Town
 미국 생활에 대한
 고품질 리얼정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All about US Life!

구인 RENT 렌트 부동산

미국 리얼리티 모든 것 자동차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드림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패이먼트 험트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퍼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속성 · 전립선 비대증 · 한 번에 해결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바르고 하면 끝내주는, 남녀공용 성욕과
 성감 개선제, 율활유 젤 #10 남성발기 O 링
 #12 천연 그대로, 오리지널 닥타 속눈썹 링
 1-213-210-9720 (제품 상담 및 주문)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에서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주 최대 **+**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 모바일 App

Up to **40%**
 핫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홈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견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속속
 향문풀림·변비·오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뱀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국 동시게재??!!**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주 전지역의 광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2024학년도 여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여름학기 개강 6월 18일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